

제2회 성남문화원 학술토론회

## 판교지역의 延城君 李坤 金石文 연구

- 일시 : 2004. 2. 25(수) 13시~17시
- 장소 : 낙생 농업협동조합 강당

- 주최 : ☰ 성남문화원
- 후원 : ☀ 성남시/성남시의회
- 협찬 : ☷ 연안 이씨 연성군파 종중회



## 차례

성남문화원 · 제2회 · 학술토론회 · 論文集

\* 개 이 사(남연우 영남문학원장) / i

\* 육 사(김양연 영남시의원) / ii

\* 謂 詞 '영금빛 세월의 사랑' (시포시연 인문집) / iii

\* 발 표(마망 : 남풍연 박사) / 1

- 가포강연 - 이용식(한국영인문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 한국사)

'망토사와 문음에서의 역할'

\* 유 익

\*(특별한호/문효임 <판소리보은과 영남지끼부경> '보령' · 판소리 임영연 申 '망여오리')

- 주제 1 / 11

- 민준엽(영남기술대학 강사/국문학, 망토사학) '연이, 연영군의 가계 연구'

- 주제 2 / 41

- 은만일(한국영인문학연구원 한문연구원/마을학자) '送城君 李旼 墓碑의  
양식 · 문양 · 세례에 관하여'

- 주제 3 / 57

- 이민식(극동대학 강사/한국사) '연영군 문음의 금여분 본포면령과 영기'

\* 유 익

\*(특별한호/신미경 <음사랑 무용단명> '않풀이 음')

- 증언록론

토론회 :

전학숙(경원대학교 교수/한국사), 문우연(전구대학 교수/한국사)

조유현(한국립문화재 연구소장), 이임녕(국부인파 <힘의공> 풍음 부작장)

\* 부 록

\*영남지 판교동 연천도 / 71

\*연안여씨 계보구례(원문-역문) / 72

\*연이 연영군과 음음의 원연명단 / 102

\*연영군 이근 선생 유포사업 무관위원회 / 103



## 성남시 정체성 확립의 주도자

성남문화원장 남 선우

우리 성남시의 발전은 단계적으로 변모되어 왔으며, 신 도시로서의 역사와 문화 발굴 또한, 점진적으로 조사, 연구되면서 지역 청탁성을 침립해 나가려고 심혈을 경주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성남문화원에서는 항토유적을 수집, 정리하며 자못, 크고 작은 사업 추진을 하는 25년 성장 속에서 시민의 평생교육과 내 고장의 문화연구에 소임을 맡아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언론 행사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다음 몇 가지 문화행사는 주목받는 사업들입니다. 그 일례로 <울동공원 3.1절 추념식> 거행, 분당구청 광장에서의 <연날리기 대회>, 남한산 아래 <개천절 도당굿>, 문화현장 답사로 <내 고장 바로 알기> 현장학습, <성남사랑 글짓기> 등이야말로 성남시 문화의 계승을 위한 고유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2년 사업으로 편찬을 보인 <성남 금석문 대관> 역할 간행은 크게 자랑할 만한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교지역의 연성군 금석문 연구" 학술토론회는 2회에 걸친 국제학술회의, 8회까지 연례행사로 개최했던 전국 규모 학술회의 높은 성과에 이어지는 지속성 있는 "제2회, 학술 토론회"입니다. 해마다 판교 신 도시 개발에 앞서서 판교마을지 조사 연구사업에 맞불려지는 이 연구모임을 통하여 성남시 정체성 확립에 주도자로서 뜻깊은 행사이입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판교동 일대는 예로부터 교통요충지요. 500여년 이상의 첫 입향조 연안이씨의 여러 금석문들이 연구, 검증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중앙공원 같은 문화재 명소의 시민 학습장이 되도록 관심을 불러 모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 2.

## 금석문은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영남시민의 의향 김 양 현

오늘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그 역사를 후대 자손에게 계승발전시키고자, “판교지역 연성군 이곤 금석문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문화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계 교수님을 모시고, 제2회 성남문화원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인심이 순박한 뿐만 아니라 쌍용 거를다리기, 저잣거리, 민속장터 등 유형, 무형 역사적 사료가치가 있는 전통문화 유산들이 산재해 있고 우리 지역의 전통사상인 충·효 정신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농업지역로서의 판교가 신 도시 개발사업을 통하여 수도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석문은 당시의 시대적인 역사성 및 우리 선조들의 문화 예술적인 사상의 무수성을 고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헌상의 자료부족과 이 부문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되지 못하였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역사가 살아 숨쉬고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금석문을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문화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금번 “판교지역 연성군 이 곤 금석문 연구”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성남시민이 지역문화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성남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성남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금번 학술토론회가 판교역사의 사료로서 계승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 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남선우 성남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성남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금빛 쪽 발의 사랑

태양신 '三足鳥' 밤송이여!

안준섭(시조시인·국문학자·영토색학자)

밤은 하늘 흰 구루  
솟구쳐 太陽 받든  
먼 먼 그날, 하늘, 사람  
우러러 사모했네  
드디어  
한 눈을 감고  
황금 활 箭을 겨누었네.

泰平한 만 백성 자유  
그 과녁은 어디였나  
한 세상 다 달지 못한  
迷妄 풀숲의 基礎路  
마침내  
東邦의 사침  
꿰어 보고 싶었느라.

碧空을 차고 올라  
세상을 휘돌아서  
바람 앞에 천소리꾼  
魂靈 자취 잠 깨운 뒤  
延城君  
몸 뿐 땋에  
衣冠 바로 하거니.

그 세상에 살지 않고  
그 세상을 다 안다고  
누구도 함부로야  
금 긁기는 못하거늘  
출부린  
風說 가르고  
도포 입고 오는 이여,

새 떠에서 늙어 갈  
출을 창창 사이로  
호령하여 부르려네  
옛말을 전하려네  
三足鳥  
받아든 品階  
황금빛을 펼치시라.



기조강연 발표

'향토사와 문중에서의 역할'

허 흥식(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 한국사)



## 향토사와 문중에서의 역할

許興植 (한국경산문화연구원/한국학대학원교수/민국석)

- I. 머리말
- II. 연안이씨의 기원과 시대배경
- III. 인물의 배출과 조선초 정학과정
- IV. 자료조사와 정리의 필요성
- V. 맺음말 - 도시화에 대비한 정비방향

### I. 머리말

역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만나서 이룩한 유산의 하나이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현재의 과제를 설정하고 미래를 대비한다. 현재란 당시를 살아가는 인간이 마련한 주제의 시작과 현실을 의미한다. 운동선수가 느끼는 현재는 때로 순간을 단위로 삼지만, 인간이 일정한 공간에서 이룩한 삶의 환경은 수 세기를 단위로 현재와 연속시키기도 한다.

인간의 집단으로 작계는 가족과 친족이 있고, 이보다 확대하여 친족을 이루고, 친족이 몇 백 년 이상 확대하면 문종을 이루어 향토사의 핵심을 형성한다. 문종보다 좀 더 시간으로 상위의 개념은 성씨집단과 민족이 있고, 공간으로는 자연부락과 행정구역, 그리고 국가가 있다. 향토사에서 주된 대상은 친족보다 크고 성씨보다 작은 문종이 핵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문종은 공간상으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삼아 동족부락으로 발전시키면서 결혼이나 사묘를 이용하여 다른 문종과의 연합과 유대를 강화하였다. 연안이씨 연성군파는 청계

산의 등록자락인 楊生에 세가하면서 600년 가까운 기간 등록부락을 형성하였다. 현대에는 도시의 발달과 분산화 경향이 강한 추세에 따라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나, 이곳에 先山과 祠堂을 지키고 삶을 영위하면서 구심점을 잃지 않았다.

나라의 역사는 중앙과 지역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사는 항토사가 바탕이 되고 항토사는 천족이나 문종이나 서원과 사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경제와 문화, 그리고 종교와 祭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연안이 씨 연성군과의 문종이 낙성에 공간을 확보하기까지의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곳에 남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개할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여, 문종을 중심으로 항토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안이 씨의 기원과 시대 배경

시간과 공간은 분리하기 어려운 밀착관계이다. 연안이 씨는 연안이란 공간을 기점으로 모면 기간을 통하여 혼연집단을 이루고 본관으로 삼았다. 본관이 공간이라면 혼연은 인간이고, 시간은 과거를 거쳐 미래로 연속되며 현재는 순간에 불과하다. 연안은 광복직후의 延白郡으로 延安과 白川(白川)을 합쳐서 형성된 고을이다. 연안은 시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칭과 행정구역이 변하였다.

<표 1> 연안의 명칭과 행정구역 변천사

시기	명칭	명칭변화의 동기	전기
고구려 (668년까지)	冬三郡 <sup>1)</sup>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함
신라 (668~935)	海單勝		위와 같음
고려 초기 (태조 940?)	鹽州		위와 같음
성종 을미 (995)	鹽州防禦使		위와 같음
현종 초 (1010?)	海州廳都		위와 같음
고종 정숙 (1217)	後葛監務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함
고종 을미 (1235)	永慶縣丞	경안군을 물리친 공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함
원종 기사 (1289)	知慶州事	慶社功臣冊封	위와 같음
충렬왕 무신 (1306)	頤州		위와 같음
충선왕 경술 (1310)	遜州牧	행증제도의 개편	위와 같음
조선 태종 계사(1413)	延安郡鹽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황해도 연안도호부 건치원혁에는 송읍을미라 하였고 솔은 三(삼)이라고도 한다고 한다. 더 한 鹽(鹽+로)鹽洛이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적었다. “三一作 三一云鹽洛城”

연안은 경기에 인접한 서북지방으로 북으로 해서 청백을 끌타리로 삼고 남으로 평야가 펼쳐졌으므로 기후가 온화하고 농산물이 풍부하다. 앞으로 맨 끝에는 바다와 접하여 어업이 풍부하므로 문인들의 작품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고려에서는 한 때 경기에 속할 정도로 수도였던 개경에 가까웠고,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공신과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이곳은 고려를 개국한 황건의 선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정도로 개국에 협조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고장이었다. 이 지역의 성씨로 연안이씨는 물론 연안차씨가 유명하다. 연안차씨의 柳車達은 貞州柳氏나 후의 文化柳氏와 상관성을 가질 정도로 개국에 협력한 공신이었다.

삼국시대의 연안은 겉고 편안한 지역이 아니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각 축장이었고, 당과 신라의 이해가 맞아서 나당의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폄망시켰다. 연안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편입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의 토착세력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기는 고려초였다.

연안이씨의 기원에 대한 기록은 후대의 자료만 남았다. 현존하는 만성보로 가장 오래된 氏族源流에 의하면 시조인 李茂가 唐의 中郎將으로 藝定方을 종군하여 백제를 폄정하고 연안에 賴籍을 받았다(賜籍)고 하였다.<sup>2)</sup>

위의 기록은 몇 가지 의문을 남긴다. 하나는 백제의 멸망에서 1000년 후의 기록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태조 황건의 경우에도 선대가 당의 왕족과 연관이 있다고 기록하였을 정도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당과의 관계를 강조한 느낌이 있다. 신라가 아닌 고구려나 백제의 후에는 국가의 팬망과 더불어 시련이 있었고, 자신의 뿌리를 당시에 시기원하였다고 부회하였을 가능성도 많지 않다.<sup>3)</sup>

1961년에 간행된 延安李氏延城君源譜에 의하면 延安李氏追遠譜라 하여 李茂로부터 19세대에 이르는 계보를 정리하였다. 追遠譜에 16世로 실린 裴洪은 고려 高宗時의 인물로서 연안이씨세보에도 계보가 밝혀진 시조로 수록되었다. 추원보는 姜秉漢가 편집한 古代朝鮮氏族大譜에서 초록하였다고 밝혔다. 秉漢는 姜必東의 호이고 그는 학겸도 利原에서 살았던 향토사가이면서 동시에 많은 문학을 모아서 萬姓譜를 만들었다고 전한다.<sup>4)</sup>

2) 逢江 趙康의 조카 趙挺叔이 차운 쪽으로 서봉이 전함. 1991년 保善文化院에서 일한본이 간행 p.63 “李茂  
唐中郎將 徒藝定方 平百濟 仍曾仕新羅 賴籍是安云”

3) 연안이씨의 기원이 고구려였으리라는 추측은 몇 가지로 나누어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후대의 만성보에 의하면 그의 후손이 밀해에서 대대로 벼슬하였고 광종시에 고려에 벼슬하였다고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녹강 미군의 묘비를 비롯하여 남왕주씨

4) 후는 宇文,號는 葉漢 1793년 成龍道 利原에서 제어남으며 俗稱 葉漢即에게 수학하고 다시 老津 真懶堂  
門下에서 수학하여 더욱 진진하였다. 널리 葉漢譜을 수집하였으며 그의 曾孫 葉壽(葉祐) 또는 葉集로도 쓰임에 의하여 1932년 葉州葉氏의 족보권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1857년 10월 29일에 墓坐하였고

### III. 인물의 배출과 조선초 정착과정

연안지역의 성씨에 세종실록에 의하면 土姓 7, 亡姓 1, 村落姓 2, 繢姓 3이고, 이씨는 토성으로 두 번째이다. 이를 정리하고 이 지역에서 배출된 조선전기까지의 인물을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자료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안도호부 성씨의 구분과 배출된 인물

성씨 구분	배 출 인 물 (은거와 행적)
土姓 宋	宋思誠(목은문고) 宋氏(열녀)
季	季沿確(고려사) 季貴齡, 季貴山, 季石亨, 季補丁, 季崇元, 季源琦, 季源城, (이상 科官)
洪	季貴齡(이상 신증동국여지승람, 韓자)
高	
魯	
田	
金	金灝 金長壽 金基 金日知 金羽 金悌臣 金沂 金闕 金誥 金善, 金昇 (科官)
鄭	鄭連慶 (양촌진, 科官) 鄭周 (科官, 신증동국여지승람)
村落姓 車	車松祐 (고려사)
繢姓 以	
金	
黃	
崔	

이상과 같이 연안이씨의 인물은 토성으로 마지막으로 실린 김씨와 함께 가장 많았다. 연안이씨와 연안김씨는 조선시대에 급제자와 문장가가 많았으나 고려시대에는 무장인 李沿驥을 제외하고 뚜렷한 인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강원동이 정리한 주원보에는 이분회를 비롯하여 고려후기의 많은 인물과 특히 과거에서 장원급제자가 많으므로 이를 많은 자료를 모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안은 평야지대이므로 산지형이나 분지형보다 토성이 징착하여 오랫동안 변성하기 어려웠다. 고려시대는 개경의 서북지역으로 대륙의 세력이 자주 침략하였으므로 이곳에서 안정된 급제자를 배출하기가 어려웠다고 짐작된다. 다만 개경이 가까우므로 다른 지역보다 출사의 기회는 많았다고 하겠으나 정변에 휩싸이는 불운도 많았다고 짐작된다. 이분회와 차충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들은 모두 무장이었다.

利原郡 豐豐里 土雜洞에 있다고 한다. 그가 이용한 행위보가 유명하고, 그가 정려한 禮姓譜는 경주려세, 豊德全氏 등의 족보에서 이용되었으나 갑설우가 저었다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갑설들은 할로사가로서 그의 운집에 실린 利城古記는 崔南蕃이 賴興王摩訶羅底舍律를 확인하는 지 품질이 뛰어나 정도이므로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려말에 연안이씨는 남쪽으로 이주하였다고 짐작된다. 족보에 의하면 연안이씨는 개성의 서북에서 반대방향인 동남으로 이동하였다. 시조 龍溪의 증손 承頤의 배위가 전 주희씨이고 다음의 靖恭의 배위가 南平文氏이므로 전주의 외가로 낙향하였고, 몽고의 침입기간으로 13세기 중반으로 짐작된다. 몽고와 화의한 승안의 손자 元發부터 雜仁 九水桐에 묘소를 남겼으므로 이전에 이곳에서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연안이씨로 생몰연대가 밝혀진 최초의 인물은 貴齡이고, 그의 생존기간은 1346~1439.6.6로 94세를 살았다고 한다. 호는 康胡公으로 그의 호적이 남아있다. 호적에는 시조이고 6대조인 습흥부터 정리되었으므로 연안이씨의 족보는 서문에서 밝혔듯이 갑호공 호적을 토대로 출발하였음이 확인된다.

연안이씨는 귀령은 물론 그의 동생인 귀산과 그의 아들까지도 용민에 世葬하였으나 귀산의 자 속의 차지 根健의 데위인 丹陽李氏부터 樂生面 板橋里에 세장하기 시작하였다. 근건은 세조 2년까지 생존하였으나 그의 묘소는 실전이므로, 이후에 나름으로 이주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근건은 생원으로 쳐별되었고 시기로 보아 단종의 폐위와 상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성리학이 심화된 명종말부터 가슴과 호적을 정리하여 3파의 문중에서 각각 시도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정리한 자료가 모두 일실되고 오로지 원산의 문중에서 작성한 죠보만 남아서 이를 토대로 선조를 사년에 초간되었고, 이를 효시로 현존하는 세보가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정리되었다.

- (1) 선조 풀사보 (1604년) —— 益源府院幕 李光庭序, 公州牧使 李弘老序  
東胡公後孫一貴齡 貴山後孫 —— 樂生 ———— 李光庭  
石亨後孫一判書 延壽 —— 雜仁  
淑時淑誠派 —— 益陵君 好問先祖-宪山 —— 民年後에도 보존
- (2) 숙종 갑술보 (1694년) —— 益陵君 李萬元 跟
- (3) 순조 계유보 (1813년) —— 李重蓮蹟
- (4) 경신보 (1920) —— 李容九序
- (5) 연성군파보 계묘보 (1960년) 李惟寧 序

이 지역은 판교보다 樂生이라고 고지도에 나와 있다. 지금의 판교란 낙생지역을 외부와 연결시키는 널다리이고 이것이 없어지자 낙생을 대신하는 지명으로 쓰였다. 널다리는 전국의 여러 곳에 있는 우리말이고 판교란 이를 한자로 표기한 공용어에 불과하다. 본래 널다리란 흥수에 빠내려가지 않도록 한쪽의 널판에 구멍을 끌고 밧줄로 묶어 놓거나 바위에 끌어놓은 다리를 말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개성의 동남입구에 있던 널다

리에 위치한 판문점이 가장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서해안에 평야가 발달하고 태백산맥에서 갈비뼈처럼 산맥이 서쪽으로 이어지고 간줄기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펼린다. 이러한 곳의 명당이란 넷풀이 역수하는 곳, 다시 말하면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개성과 서울이 대표적인 명당이고, 낙성은 한강의 남쪽에 있는 작은 명당에 속한다. 이곳에는 큰 물이 가면 강물이 불어서 물이 역수하는 경우도 생기며, 이때에 널다리가 뜨게 된다.

동쪽으로 흐르는 넷풀을 동산에서 바라보면 달빛이 뮤난해 반짝인다. 이를 달내내라하고 달이 나오(뜨)는 시내란 뜻이다. 달천이라 불리는 곳도 있고 그곳에 있는 고개를 달내고개나 달래산도 있다.<sup>5)</sup> 경주에도 동쪽에 조그만 동산이 있고 이를 월성이라 하였다. 판교의 봉남에도 달내고개와 달래내가 있다. 민속학에서 해설은 후대의 말의 꼬리를 불인 이야기이고, 외부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열려 있었다.

#### IV. 자료조사와 정리의 필요성

연안이씨는 조선시대에 과거급제자와 문행(大提學)이 다수 배출된 문장가의 집안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정작 가문의 고문서나 전래한 전적의 정리는 풍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금석문이 최근에 정리되었으므로 주목된다.<sup>6)</sup> 필자는 연안이씨 집안에 1402년 호적이 전래하므로 이를 정리하여 학계에 소개하였고, 이번에 호적의 원본을 비롯하여 귀중한 문헌이 나오리라 기대하였으나 의외로 많지 않았다.

문중끼리의 협조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적이 적은 때문인가 주목할 대상이다. 낙성에도 별묘와 사당이 견재하고 많은 비문과 묘표가 견재하므로 앞으로 좀더 자료가 보충되리라 짐작된다. 이미 금석문은 정리하여 방대하게 간행되었으나, 고문서나 문집과 성책문서를 발굴하여 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몇 가지 중요한 문헌을 중심으로 원본과 내용상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자료는 필자가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sup>7)</sup> 이를 전래한 가문에서 1981년 간행한 족보에 실려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으나,<sup>8)</sup> 이보다 앞서 1963년에 간행된 연안이

5) 奢侈적이고 기품이 모색 기록은 月出山이고 月南山이나 月生山으로도 불었다. 청춘 날짜 만날의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와전시켜 근원산의 연암으로 와전한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6) 『韓國全石文大觀』 卷 1, 韓安李氏編, 高麗全石院, 2000.

7) 許興植 「13-15세기 戶籍資料의 條文과 特別」, 『古文書研究』 9.10집, 2002.

8) 『昌安李氏唐湖公集遺稿』 (李唐湖), 大田大林出版社, 1981. 실연 p.108 大田市東面大禾洞十五號三田

씨 연성군파보에도 실려 있음을 후에 재확인하였다.<sup>91</sup> 이번에 보다 선명된 속종 갑술보 (1694년)를 이용하여 몇 글자를 바로 잡았다. 이보다 앞선 초보와 고문서로 전하는 자료를 원자료를 찾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문의하였으나 아직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연인이씨에 관한 자료는 문현자료와 비문현자료,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일괄자료로 구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문현자료는 고서와 고문서, 그리고 고문서를 모아서 성직한 冊簿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밖에 비문현자료로는 유적과 유물로 나누어진다. 원자의 묘 청으로 조사된 자료 가운데 趙彊父의 서첩을 비롯하여 약간의 고서가 있으나 중간보와 연성군파보를 제외하고 연안이씨와 관련된 자료는 극히 적었다.

연성군파의 경우에는 선대의 墓所와 古宅, 古樹 祠堂(別廟王廟) 등이 해당되었다. 일괄자료로는 묘비와 묘갈이 대상이며 고묘를 이장하는 경우에 시신과 함께 떴던 鮑衣와 銘旌 등이 미아리의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誌石도 출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괄자료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보존하여 파손을 막아야 하겠다.

다음은 1402년에 작성된 강호공호적이고 각 행의 오른쪽에는 이번 중간보에 실린 자료로 고친 글자이다.

#### 康開公戶籍

開 - 胡

建文四年六月日 戶口 西部上 午正五里

嘉靖大夫承樞府左軍摺制兼刑典醫監事李貴齡年五十七本延安

父奉璡大夫典工判書上護軍元發古名寵卒

祖追封匡靖大夫門下評理上護軍行典實都監判官靖恭卒

曾祖中正大夫左右衛大慶軍顧改名承頤

母康德郡以改松讓郡夫人金氏本成川 康 -- 廉(신증동국여지승람) 讓 -- 廉

外祖追封率卿大夫密直副使上護軍行左右衛保勝中郎將金南寶故

妻昌寧縣夫人成氏年五十二 本昌寧郡

父榮璡大夫摺御尚書藝文館學士成俊德改名准得卒

祖追封匡靖大夫門下評理上護軍行左右衛精勇中郎將卓

曾祖奉善大夫典客副令公弼

母同福郡夫人吳氏故 本同福郡

外祖中正大夫典客令吳允伯

<sup>91</sup> 李貴齡 延安李氏延城君正謹 延安李氏 延城君遺譜所, 第一回翻印, 1963, pp. 19-20.

井產一女子年三十一 夫中副大夫知陝川事嶽宣年三十八  
二女子年二十八 夫承議郎禮賓主簿同(正)武略承奉官趙賛年二十九  
一男宣略將軍虎賁頭衛司前領護軍謀兒名賢叔年二十六妻金氏年二十二本唐風郡  
二男前承義副尉神武侍衛司右領算員孝童改名敎年十九妻柳氏年十八本晉陽府  
戶組門下評理靖恭  
妻父追奉通直大夫知密直司事民部典書上護軍文惟璠 奉一一封  
父刑部侍郎兼三司副使大倫  
祖金紫光祿大夫守司空左僕射三司事孝軾 三司事一一啟  
曾祖殿中內給事克昌  
外祖通議大夫判司卒事東宮侍讀學士充史館修撰官知製誥三司事崔林壽  
戶曾祖大護軍承頤  
妻父內侍奉議郎考勤正郎崔衢  
父銀青光祿大夫樞密院事御史大夫寶文閣太學士太子賓客尤憲  
祖歷上三韓匡靖金紫光祿大夫守太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守文殿太學士監  
修國史判吏部事贈謹文定公甫淳  
曾祖追封司徒行尚書禮部郎中題紫金魚袋均  
外祖三韓三重大匡特進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守文殿太  
學士監修國史上柱國判吏部事贈謹良淑公任憲  
戶外祖追封密直副使金南寶 使一一使上護軍  
父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尤卿  
祖追封奉翊大夫知密直司事使上護軍璠 奉一一瓘  
曾祖國子學生漢韶  
外祖神虎衛勇中郎將李思  
戶外祖金南寶妻父追封匡靖大夫知愈議府事上將軍奇之丙 内一一丙本幸州  
父匡靖大夫知愈議府事上將軍版圖司事洪碩  
祖開府儀同三司事守太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上柱國判吏部事尤肅  
曾祖金紫光祿大夫守太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守全  
外祖起居郎朴益旌  
戶曾祖大護軍承頤  
父奉翊大夫密直副使版圖尚書致仕景茂  
祖朝議大夫判太醫監事知茶房事克榮  
曾祖檢校太子詹事行尚藥奉御襲洪

(戶)外祖監察御史金大年  
 (戶)妻父撫部(憲府)尙書成准得  
 父追封匡靖大夫門下評理上護軍行左右衛精勇中郎將卓  
 祖典客副令公弼  
 曾祖軍器監松國  
 外祖朝奉大夫秘書尹致仕洪况  
 戶妻成氏外祖典客令吳尤伯  
 父朝奉大夫三司左尹藏古名希起  
 祖匡靖大夫都僉議侍郎贊成事判版圖司事上護軍致仕璿  
 曾祖朝靖大夫神虎衛大將軍致仕匡托  
 母同福郡夫人吳氏故 本同福郡  
 外祖軍器監吳良柱

이상과 같이 이 호적은 주심호의 형태이고 기재순서는 국보호적의 주심호와 상통한다. 다만 노비가 없으나 이를 제외하면 호적의 원형에 비교적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戶"의 표시가 빠진 부분이 있고, 주심된 부분에는 "本"이 실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대체로 대대로 고급관인이었고 같은 신분의 통혼권을 유지하였다. 주심부분은 후에 보충한 느낌이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 모본을 찾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 도시화에 대비한 정비 방향

현대란 도시로 집중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대도시 근교로 거주공간을 확장시키거나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여 특정한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전통사회를 봉파시키고 뿌리가 없는 주민의 구성으로 범죄와 인간성을 삐딱하게 만드는 단점도 있다.

도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인접한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공용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스나 로마의 도시에는 스타디움이나 의사당, 그리고 공원을 만들었다. 이러한 원리는 현대에도 그대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휴식공간과 문화공간, 그리고 수변공간은 각각 공원, 문화원, 박물관, 학교, 도서관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도시

에서 공용공간의 배려는 매우 취약하다. 이들 공간과 시설은 협동심과 품질심을 향상시키고, 전통을 유지하면서 긍지를 심어주는 구심으로 작용한다.

서울에 가까운 교통의 묘지이면서 산속에 자리 잡은 판교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군중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살피 공공의 시설로 전환하여 재편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의 전부를 새로운 시설로 설계하기보다 전통을 살리면서 공원과 박물관으로 조화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판교는 청계산의 동쪽 자락이 뛰어내려 달래내까지 병풍처럼 펼쳐진 지형이므로 이를 보호하지 않고 개발을 서두르면 용인지구보다 더 큰 출수의 피해가 예상된다. 판교가 있었을 정도로 역수하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수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맥과 함께 보존할 필요가 크다. 특히 사당이나 범묘의 보호수와 암석은 훨씬하게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묘소의 석불과 분묘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고속도로에서 판교로 진입하는 풀케이트의 서쪽에 밀집된 무덤과 석불, 그리고 사당과 범묘는 이 지역의 내부를 보호하려는 병풍과 같고 많은 유적이 밀집되었으므로 이를 훨씬하게 조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연안이씨로 이곳에 정착한 遷城君 李坤의 묘소에 있는 묘비의 앞면에 구름 위에 솟아오른 해에는 삼족모가, 그리고 뒷면에는 구름을 뚫고 우뚝 서 있는 계수나무가 조각되었다.<sup>10)</sup>

청계산의 동쪽 기슭을 품고 병풍처럼 길게 펼친 끝에 위치한 달래내와 달래고개는 해와 달이 솟아오르는 지형의 의미이고, 연성군 묘비는 이를 조형화하였다고 짐작된다. 삼족모와 계수나무는 고구려 고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동북아시아 신화의 전통을 반영한다.<sup>11)</sup> 연안이씨의 기원은 물론 한국사의 거시적인 주제와도 관련되어 전자할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하겠다.

삼족모와 계수나무, 그리고 일월도는 漢代에 명도가 동북으로 확대되면서 특히 삼국시대의 魏에서 고구려를 침략하고 삼족모의 신앙이 크게 일어났으나, 고구려가 다시 회복하고 고구려의 신앙으로 중요한 대상이었다. 오늘날 민속에도 朱砂로 그린 삼족모의符籜을 안방 문틀 위에 붙이고 불을 맞이하는 상징으로 널리 사용될 정도로 민간신앙으로 깊이 지속되고 있다.

연안이씨 강호공 호적은 보기 드문 조선조의 호적으로 일차자료를 찾아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판교의 사당과 범묘는 기원이 오래므로 주위에 있는 보호수와 함께 관련된 문현을 조사하여 함께 보존할 문화유산이라 하겠다.

10) 「韓國全石文大題」 卷 1, 誠安李氏篇, 高麗全石氏, 2000, pp.105~107.

11) 李亨九, 「고구려의 三足鳥 신앙에 대하여; 고고학적 측면에서 본 조류신앙의 기원문제」, 「東方學志」, 56, 1994.

주제 1

## '연이, 연성군의 가계 연구'

한충섭(성남기능대학 강사 / 국문학, 향토사학)



## 연이(延李), 연성군(延城君)의 가계(家系)연구

인문학 (경남기능대학 / 국문학·영토사학)

### I. 머리말

한 사람의 일생 행적은 여러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수많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마다 환경 조건이 같지 않으며, 살아 온 시대 배경에 따라 각기 편차만별 삶의 기록은 극히 일부만이 전해 오게 마련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며 몇 차지않은 역사인물들에 관한 징문 가운데 그 실마리의 해답은 어느 때나 아쉬움으로 남기 일쑤였다. 조선초기 파란만장했던 문관으로서 연안 이씨 흔자공파 제11세 연성군(延城君) 이 곤(李坤)을 탐구함에 있어 그의 선대(先代) 가계(家系) 기록에서도 드라마틱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녹창(鹿窓)'이란 아호를 지닌 연성군(延城君)의 경우, 그 또한, 당대 뿐만이 아니라 모전 시대가 바뀐다 해도 그의 행적에 있어 의혹의 여지가 많은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성격이 운명을 만들고, 난세에 영웅을 배출시킨다."고 하지 않았나 한다. '녹창', 그는 실로 역경앞에서 인간 존재의미를 무수히 숙고(熟考)하였을 것이다. 증오와 분노의 벽을 내면 깊숙이 짓눌려 가며, 삶의 마지막까지 비극을 마주하지 않았나 유추해 본다.

하므로, 자료가 태부족인 연안이씨 시조(始祖)와 각 증시조 중심으로 편찬된 족보의 묘감(碑文) 및 줄을 근거할 수 밖에 없었다. 어느 성씨라도 족보(族譜)를 만들고, 연례적으로 공동 시제(時祭)를 모시는 일은 우리 민족의 전통 내백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친족간의 성씨(姓氏)를 확인하기 위하여 족보를 만들어 소중한 가보(家寶)처럼 간직하는 일 외에 선조 묘역(墓域)의 신도비와 묘표 등 각 비문(碑文)을 복제할 수 있도록 금석문(金石文)을 채탁(採托)하고 수집·번역하여 책을 만드는 사업 또한, 수백년 동안 우리나라 성씨 계보를 지켜 가려는 자랑할 만한 전통이며, '한 족족의 뿌리를 지켜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충효 이국예족 사상이 강한 우리 선대들은 조상의 행적

을 통하여 유현(幽玄)한 여운을 체득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통(家統)의 벡라를 더듬으면서 선조의 일과 체취를 느끼는 동시에 후손끼리 친목도모와 가문(家門)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갖는 터 열의가 매우 높았다.

이러하므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역사변화에 따라 성씨와 세대간 인물의 삶이란 많은 차이를 가져왔으며, 고금을 통한 내무외환(內憂外患)으로 변화무쌍했던 그려니까, 변판과 그에 못지않은 근현대 산업사회 발전에 의한 신 도시 건설사업 등 격동기 변화속에서 특히, 성남시 일원의 옛 광주 역사문화권에서도 적지 않은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면서도 아직껏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집성촌(集姓村) 20여 각 성씨별 인물들의 행적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왔다. 때마침, 판교(板橋) 지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지금에 이르러 관교 마을의 임향조(入鄉組)로 손꼽히지는 '연안이씨(延安李氏) 연성군(延城君) 녹창(鹿窓) 이 곤(李坤, 1462~1524)' 선생을 중심으로 관교지역의 금석문 연구보존회를 개최함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의 밸류음을 활기차게 물겨 나가는 좋은 계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부족한 자료와 무관심한 연구 분위기에서 사사로운 한 문중(門中) 인물(人物)을 떠올려 보는 일이란 다소 난관에 봉착되는 점 한 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더구나, 전해지는 개인의 문학자료라야 몇몇 금석문의 편린(片鱗) 만으로 인물연구에 뛰어드는 일은 본인이 함포에 빠져든 지역문화 연구자라는 소임만에 의지하는 모험이라고 자인(自認)해 본다. 특히, 신 도시로 급변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과 지역의 정체성(正體性)을 안타깝게 여기는 아쉬움에서 일면,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한다는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려는 과목 또한, 없지 않음을 실로 한다. 그러므로 파평(派爭)의 혼돈시대에서 물의를 몇 차례 일으키며 살다 떠난 '녹창'의 행적(行蹟)인지 인정 그 자신 숨길 수 없었던 진실한 삶이 어떤 것일까? 정체 모호한 인간 행적의 변본 입장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싶은 입장이다.

왕권주의(王權主義) 절대 군주(君主)에게서 벼슬도 받았지만 끝내 '녹창'은 새 군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자신의 주관과 의지에 당당히 살아갔던 관료였다. 사리분별력이 영리하므로써 주변인물들에게 적대감 등들림을 수시로 당하며, 정체 모호한 삶을 지탱 하다가도 그 시대에 맞는 해법을 적절히 골라 맞서 싸우므로써 어쩌면, 처세(處世)의 담인(達人)이 아니었을까? 아울러 4~5세기를 뛰어넘은 그의 묘역내 선후대 여러 금석문에서 조차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가치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우여곡절 많은 생애 속에서 몇 가지 뜻깊은 내용을 이 시대까지 넘겨준 주인공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들이 드러날 리 없겠으나 후손들에 의한 금석문에 새겨진 명문(銘文)과 측보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비 몇 줄 실마리에 의존하여 매우 소략(疏略)한 사료(史料)나마 그야말로 '불봉 속의 물 한 방울'과도 같지만 당시의 뜻깊은 아쉬움으로

지난 모습을 추론하면서 언제가 그 어떤 소설가 손끝에라도 잡히는 날이 온다면 블록 없이 정치적 객동기와 치열했던 권력다툼 상황에서 고통과 상실로 삶을 영위했던 연성군(延城君) 이 근(李坤) 같은 인물 형적이 흥미롭게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 문중의 대동보 이야기

우리나라 성씨와 족보의 경우, 중국보다 정확하지도 않고, 그 수와 종류 조차 시대마다 많은 차이를 가져왔다. 심지어 부정기적 인구조사 때마다 성씨분포도가 정확한 게 없어 왔다. 성씨는 혈연간의 본능적 인식으로 승계되는 분명한 사회의 연대표와 같아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한자(漢字)를 본격적으로 받아 사용하던 무렵으로 보는 게 통례(通例)인 것이다. 물론, 족보 이외의 유명인들의 개인 문집류와 비문(碑文)에 의하여 가문(家門) 계보를 추론할 수도 있다. 오늘날 족보 형태를 최초로 갖춘 것은 조선 성종대 '안동권씨 성화보(咸化譜)'요, 그 다음으로 중종-명종대 '문화류씨' 족보라고 한다. 이러한 족보들은 각 문중의 역사 자료로서 민족전체의 나무 뿌리와도 같은 가보(家寶)라고 말해 오고 있다.

연안이씨 대동화 문중의 족보발간은 오늘날까지 5회에 걸쳐 수증보(修增補)되어 왔다. 최초 족보의 발간은 1605년(선조38)이며 <연안이씨 세보> 단권(單參)으로 제호(題號)가 '乙巳譜'였다. 을사보의 서문(序文)을 쓴 이는 보국승목대부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으로 대사헌을 지냈던 이광침(李光庭 15523-1627)이며, 발문은 가선대부 충청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 절도사 순찰사 이홍로(李弘老)였다. 그 뒤 두 번째 '甲戌譜'(1694년, 숙종20)는 발문을 가선대부 평안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 절도사 순찰사요 연릉군(延陵君) 이만원(李萬元) 글로써 3권에 수보·간행되었으며, 세 번째는 "癸酉譜"(1813, 순조13)로 비교적 간략한 발문이 통훈대부 행 흥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사독관 춘추관 기주관 남학교수별 겸 춘추의 관직을 지녔던 이중연(李重蓮)에 의해 10권 분량이 되어 만들어졌다. 네 번째 '庚午譜'(1920년) 23권에는 서문은 1명이지만 발문을 쓴 이는 2명이었다. 사방 이용구(李容九)가 지은 서문 외 발문을 없은 이는 가선대부 궁내부 특진관 이희덕(李義德)과 강호공(康胡公 17대손)이라 죄은 이병묵(李炳默)의 글들이 서. 발문으로 전해 온다. 아울러 가장 최근 다섯 번째의 대동보는 "甲子譜"(1984년)였다. 총 7권에는 발간사 이철녕(李哲寧) 외 서문 문학박사 이승녕(李崇寧)과 발문에 법학박사 이항녕(李恒寧), 철사공과 26세손 이의득(李義得), 이봉희(李鳳熹) 세 편 글이 수록되었다.

지금까지 대동족보 발간의 서·발문 속에서 연안이씨 중시조(中始祖) 갈래는 지금의 4

대파가 아니라 '태자 험사공파'(襲弘), '소부감 판사공파'(贊呂), '통례문 부사공파'(濟) 3대 중시조로 기록되고 있다. 최초의 "을사보"라든가 네 번째 증보 간행된 1920년도판 "경신보"에서 조차 위 3파를 언급함에 그쳤는데 해방이후에 '대장군공파' 중시조 한 갈래가 추가시켜진 듯 싶다. 그러므로, 이 논고(論考) 대상은 3파에 국한시키려 한다.

## II. 연안이씨 가계(家系) 조사

### 1. 연안 이씨(延安李氏) 시조(始祖)의 자료

연안 이씨는 무장(武裝) 시조(始祖)와 달리 후대로 모면서 깊은 문덕(文德)과 더 맑은 선비들의 충공(勳功)에 빛나는 봉군(封君)이 으뜸이어서 삼한갑족(三韓甲族) 명문가(名門家)로 익히 알려져 오고 있다. <연안이씨 종보> 외 여러 문헌에 전하는 기록상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 대체로 타 문중에 비해 손꼽히지는 인물들이 많아 "연안이씨는 명문의 전형이다."라고 말한다.

시조(始祖)는 본디 당(唐)나라의 장군이었던 무(茂)이다. 그는 660년, 나달(南達) 종령군으로 백제를 침공할 때 중랑장(中郎將)으로 신라에 귀화(歸化) 한 것으로 전해 진다. 연안이씨에는 계통을 달리 하는 세 집이 있는데, 습총(襲濬, 태자참사), 현려(賢厓, 판소부감사), 지(濟, 통례문사)를 각각 중시조(中始祖)로 하는 3파가 그것이다. 연안이씨는 조선에서 문과 급제자 250명, 상신 8명, 대제학 7명, 청백리 6명을 배출하였다. 연안이씨의 3대파 중에서도 판소부감사공파가 단연 뛰어나 상신 8명, 대제학 6명, 청백리 1명, 공신 10여 명을 배출하였고, 통례문사공파에서 대제학 1명, 청백리 2명, 태자참사공파에서 청백리 2명이 나왔다!!!

시조 무(茂)는 신라가 백제를 침공할 때 나당연합의 부지휘 군관으로 원장을 맡다가 돌아가지 않고, 신라를 섬기면서 문무왕 8년(668)에 김유신 장군 주첨에 의해 나당화합(羅唐和合)과 서번진수(西藩鎮守)의 공로를 인정받아 '연안후(延安侯)'에 봉해지고, 신하로 부르지 않고, 국賓(國賓)의 예무로서 식읍(食邑)을 하사 받아 연안에서 적을 두었다고 전한다. 현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에 장군동 소재 '효령사(孝靈祠)'에 사적비가

[1] <동아원색 세계대백과 사전>23권, 동아출판사, 1983.10.10(초판), 67쪽

있으며, 제봉사원 승무전(崇武殿)에 김유신장군·소침방 대총관·이무 연안후가 배향되어 있다.(1390년 장군단 건립된 후 1946년 체 건립됨)

묘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제2국립묘지 내 장군봉 상단에 “신라 연안후 이공(李公) 휘무지묘(新羅延安侯李公諱武之墓)”라 예서체로 비문이 쓰여져 1981년 건립되어졌다. // 漢:李秉九, 書:金思連 //

연안 이씨는 삼씨별로 전국의 인구 순위가 58위 가문이며, 기로소(耆老所) 예무를 받았던 이가 22명, 공신 녹훈자 10명, 봉군자 32명, 판서 54명, 칠려 13명, 시호 59명, 종묘 배향 2명, 종가 배향자 17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에 600여 년 이상의 집성촌락을 형성해 온 경기도 용인·성남지역 관교동의 연안이씨 연성군(延城君) 선후대(先後代)에서도 중시조가 어느 선조였는가 그 근거를 판별·대조할 만큼 여러 지파가 형성되어있다. 하므로 필자는 ‘연이(延李) 가계도(家系圖)’ 속에 가려져 있는 녹왕(鹿窓) 선생의 삶을 지향해 왔던 조선초의 시대상황과 일반 문종으로서 계보(系譜) 및 그 인물 행적 등 몇 가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시조 이무 묘소 전경>

기록의 정확성을 지녔다고 보는 족보의 역사가 각 문종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연안이씨(延安李氏)의 경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 등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본관을 업은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연안 이씨의 시조(始祖) 문평공(文平公) 무(茂)에 대한 행적은 김유신(金夷信, 595~673) 사후(死後)에 추존(追尊) 된 <夷武王 實記>에 있는 65자(字)기록이 가계(家系)의 가장 확실한 근거임을 알 수가 있다.

"唐將李茂救我新羅同誠百濟又使唐羅和合功德不小今鎮守西蕃宜加封以禮 莖之王曰此寡人之意也乃以李茂封延安使食采邑一千戶差欽賓之而不臣焉"

"당나라 이 무 중랑장(中郎將)은 우리 신라와 함께 백제 정벌을 도와 당나라와 신라의 화합에 크게 공을 세운 이로서, 지금 서변 땅에서 군대를 주둔하여 지키므로써 관작을 수여하고 예로서 대접이 올립니다."라고 김유신 장군이 문무왕에게 이번 뜻을 주원하였다니 '과인의 뜻도 같도다.' 하였다. 이에 이 무 장군에게 <연안후(延安侯)> 작위를 수여하면서 1천호의 영지(領地)를 내려 공신(功臣)의 귀한 예우로 후대(厚待)하였다.

당 나라의 충랑장(中郎將)으로 연안역에 봉해진 문행공(文清公) 이 무는 공을 세워 연안 백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연안(延安)'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 왔으나 계대(系代)가 실전(失傳)되어 상계(上系)는 살고(詳考)할 수 없고, 그의 후손에서 습 충(懿洪 1166~?, 태자·황사공파), 현례(賢烈 1136~?, 소부간관사공파), 제(濟 1307~?, 통례문부 사공파)를 비롯하여 10개 파로 문파(分派), 파조(派祖)를 1세조(一世祖)로 하여 계대(繼代)하여 왔다.<sup>12)</sup>

고 하면서 연안 이씨는 이미 신라 말기에 중국 당나라에서 귀화(歸化)해 새로이 가문(家門)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보첩(譖帖)발간의 관습이 미진하였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전란(戰亂)에 의해 실전(失傳)되어 윗 세대를 알 수 없는 중간 선조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점차 후손들이 확대되어 왔다고 전해 온다. 호남에 봉동이 같은 3개 중 시조(中始祖) 외 함경남도 청량군에 묘소가 있다는 '대장군공파'(松1204~?)가 추가되어 현재는 4대 중시조 아래 10여 지파(支派)가 늘어났으며, 후세로 오면서 점차 하위소파(下位小派)가 여러 갈래 형성되고 있음을 조사로 알 수 있다.

#### 그 외 연안이씨 씨족을 소개하는 '삼한갑족 연안이씨'라는 글에서도

무릇 사족(士族)으로서 세도와 권력, 부귀와 영화를 멀리히되 모름지기, 의를 숭상하고 도덕과 문장을 밥들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쌓아야만 명문이라 할 수 있으니, 연안이씨야말로 8대 장문(旌門)을 비롯하여 효자·충신·절무·절녀가 무려 26분 아시고, 재상 9분과 7분의 대제학과 제학, 목당·호당을 풀풀어 80여 분이 되시며, 더구나 덕행의 가장 큰 표본인 청백리를 지내신 어른이 7분이나 되어서 모든 섭씨의 백미(白眉)이며, 반 천년 조선조에서도 그 유례를 견주어 볼 수 없이 자랑스럽고, 이씨 조선에서만 문파 급체 236문도 인구수에 따라 모든 성씨에 비견하여 가장 많음은 물론이며, 더욱이 신라조 시조공(庶)을 비롯하여 최근세 석모공(東寧)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12) <자랄스런 너희 족보>9권(이씨), 뿌리 찾기운동본부, 1997.4.20, 30쪽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국한에도 담당하게 앞장서서 멀사불공한 공적 이아말로 연안 이씨 가문에 특히 많아, 오로지 삼한에 걸친 공적이 너무도 커서 명실공히 누대에 걸쳐 삼한갑족이라 연연하여 칭송받아 왔다.<sup>13)</sup>

라고 뿐만이 알리고 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제2국립묘지 효령사 경내에 세워진 시조(始祖) 묘표(墓表) 일부도 소개한다.

<前略> 시조께서는 신라 태종 무열왕 7년 즉, 680년에 당나라 출량장으로서 소첨방과 함께 신라의 원군으로 모시어 삼국통일의 대과업을 이룩하려는 전진에 출군하시고 큰 공을 세우신 분이다. 그리고 소첨방이 핵체전의 승세를 몰아 신라까지를 정복코자 일계를 모의하므로 소첨방을 경계하고 만류하여 반절 의사를 번복시켜 곤, 두 나라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의역이 되고, 신라중통의 기반이 되었으니 시조의 그 공적은 이토록 위대하셨도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라에 머물러 벼슬하여 태종 무열왕이 연안을 사적하고 연안백에 봉하니 이로 인하여 본관을 삼았다. 문무대왕 8년에 김유신 필수가 연안후로 추봉하여 죄를 1천호와 빙객의 예로써 대우할 것을 주청했으니 이 어른이 곤, 우리의 시조이시다.<後略> // 후손 東九·崇寧·恒寧·慧承·恩 함께 의본을 모아 삼가 비문을 선정하였고, 안동 김씨의 원성이 삼가 비문을 쓰고, 서기 1981년 4월에 충건 하다. //

훗날 '庚申年'(1920) 중간보(重刊譜)에 소개된 10개 지파도 참고로 소개한다.

태자 첨사공파(麟洪),	소부감 판사공파(賢昌),	통례문 부사공파(濬),
대장군공파(壯),	예부 전서공파(植),	이부 시랑공파(分賛),
찬법 관서공파(昉),	밀직 부사공파(得良),	절행공파(伯衍),
영광군사공파(季行).		

이 중 광침(光庭, 1552~1627/호 海車)을 배출한 태자 첨사공파, 정귀(廷龜, 1564~1635/호 月峯)를 배출한 소부감 판사공파, 호민(好閔, 1553~1634/호 五峰)을 배출시킨 통례문 부사공파가 '연이(延李) 문중(門中)'에서는 시조 이후 대표적 중시조 지파(支派)의 주축이 되고 있음을 여러 문집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시조(始祖) 이후 약 5세기 동안의 상계(上系) 선조 행적이 없으므로 여러 차례의 국란기(國亂期)에

13) <祖廟碑> 개광식 충부 음풀원, 2000.10.20, 2쪽

期)로 인하여 기록이 실전(失傳)되었거나 아니면, 권세있는 반대 세력 사이의 치열했던 암투(暗鬭)로 인하여 한때, 유래 내지 멸족(滅族) 위기를 겪게 되거나 또한, 보첩(譖帖) 제도가 미비하여 살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미비할 수 밖에 없는 선대들의 기록을 어쩔 수 없이 몇몇 금석문 등의 기록으로서 중시조 행적만이라도 살펴보려고 한다.

금석문은 철동기(鐵銅器), 석비(石碑), 화폐, 인장 등에 새겨진 명문(銘文), 금문(金文), 석문(石文)으로 구분된다. 다만, 여기서는 석제의 비(碑) 일명, 비간(碑碣)이라고 통칭되는 석문 내지 족보 문자기록에 한정하므로써 주로 연안 이씨 문중 족보와 몇 점의 판본, 영인된 석비에 의존하되, 연이(延季) 문중의 각 중시조 행적과 녹참(鹿參) 연성군(延城君) 이 곤(李坤)의 비문을 조사해 보는 일로 초점을 둔다. 금석문을 통한 고대사(古代史) 이해의 자료적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인(故人)의 사적(事蹟)을 전하기 위한 신도비와 묘비 기록은 선조들의 가계(家系) 점리에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료로 삼아야 한다.

## 2. 비문(碑文)에 나타난 중시조(中始祖) 자료

### (가) 태자 첨사공파(詹事公派) 습옹(襲洪 1166~?) 행적

공(公)의 謂(號)는 襲洪(습옹)이고 號(號)는 學翁(학옹)이시다. 始祖(시조)이신 謂(號) 茂(무)께서 <中略> 麗末鮮初(여말선초)의 혼란한 사회상황으로 인해서 譲牒(보첩)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늘과 선조의 隨助(음우)를 받으사 고려 중기 고종연대에 公(공)께서 與章(흡존)하여 檢校太子詹事(검교참사)로서 尚藥局(상약국) 奉御(봉어)에 오르시니 곧, 우리 家中(종중)의 繁盛之源(번성지원)인 中始祖(중시조)로서 18大枝(대지) 3萬餘葉(만여엽) 자손들의 崇仰(승양)의 像(상)이시다.

哀憊(애석)하게도 公(공)의 行跡(행적)을 咎詳(소상)히 기록한 譲牒(보첩)과 緯他(여타) 史料(사료)의 不在(부재)로 인하여 墓所(묘소)를 찾을 수 없으며, 省墓(성묘)조차 不可(불가)하게 되었다. 이에 家意(종의)를 모아 산을 깎고 털을 다듬어 새롭게 墓儀(묘의)를 갖추어 崇慕(승모)의 道理(도리)를 따르며 公(공)의 큰 뜻을 잊고자 하니 墓文(승문), 清白(청백), 忠孝烈(충효열)에 빛나는 三韓甲門(삼한갑문)의 永遠(영원)한 繁榮(번영)과 함께 永世是寧(영세시녕)하옵소서.

// 서기 1993년 10월 (24대손 문겸 元寧 謹識, 26대손 적성 謹書)//



태자참사공(文清公)비문

## (나) 소부감 판사겸파(判事公額) 현리(賢栗 1136~?) 행적

<前略> 그 후 근 500년이 지나서 고려 韓宗朝(의종조) 때 長後孫(장후손) 賢栗公(현리공)이 小府監 判事(소부감 판사)로 계시며, 知茶房事(지다방사)를 겸임하셨는데, 이는 궁중의 國庫(국고)와 尚食局(상식국)에서 황실의 모든 삶됨을 管掌(관장)하는 重職(중직)으로서 韓宗(의종)의 신임과 총애가 지극했던 것이다.

고려태조 건국이래 200여년 불교를 숭상함이 國敎(국교)와 다름없이 官民(관민) 모두에 성행하여 왔는데 의종조때 와서야 公(공)이 儒教(유교)를 倡明(창명)하시니 성리학의 대학자이셨다. 文烈公(문렬공) 金富軾(김부식)과 더불어 고려대의 유학자로 송망받아 振世(진세)하셨다고 전한다.

公(공) 54세때의 眞相(진상)이 安(안) 文成公(문성공)의 진상과 一帖(일첩)으로 세상에 전해온은 公(공)이 안문성공에게 儒學(유학)을 傳授(전수)하여 내려온 공을 後人(후인)들이 敬慕(경모)하여 안문성공과 함께 그래서 전해온 것이다. 公(공)의 親筆書冊(친필서책)이 遷城府院君(연성부원군) 標軒(저현)家(종가)에 眞相(진상)과 서찰이 현재 보전되어 있는데 그 필법이 遷翼(준려)하고 劍直(경직)하시니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公(공)의 心想(심상)을 가히 무려 볼 수 있으며, 서찰의 내용은 公(공)이 3년여 동안 타국에 계시면서 使節(사절)로서 본국에 보낸 글로서 현지에서 알아보신 내용과 감회를 쓰신 것이다.

公(공)이 3년여 오랫동안 외교사절로 계셨던 것은 韓宗年代(의종년대)의 고려는 복록

宋(송)나라와 金(금)나라 암방으로 대립되어 있었으며, 문물교류와 義理(의리)로는 宋(송)나라와 헤어질 수 없고, 金(금)나라와는 국경이 접하여 있고, 交易(교역)이 많아서 政略的(정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였다. 고려와 송·금·三國(삼국)은 相互牽制(상호견제)하며 복잡하고 풀기 어려웠던 시기에 公(공)께서는 王(군왕)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잘 수행하여 송과 금 양국에 걸쳐있는 많은 國事(국사)를 잘 해결하셨으나 그 공적은 참고로 커졌다. 마침 그 당시 宋(송) 高宗(고종)연대 전후에 周濂溪(주련원) 程明道(정명도) 程伊川(정이천)과 頤學(석학)인 二儒諸賢(거유체현)이 있어서 유교 성리학이 최고조인 때라 公(공)께서도 儒學(유학)을 공부하시며 모랫동안 이국(異國)에서 넓리 연구하시고 돌아오시어 學文(학문)을 士林(사림)에 傳授(전수)하신은 公(공)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다.

세상에 드러나는 功德者(공덕자)는 천백년 후에도 그 띵을 사모할 것인 바 天心(천심)도 報應(보응)하여 반드시 자손들에게 緯度(여경)의 덕을 내려 後裔蕃盛(후예번성)하고 忠孝德行(충효덕행)과 文章勳功(문장훈공)이 連綿輩出(연면배출)함이다. <中略>

月沙相公(월사상공)의 3대 대제학과 藍平府院君家門(연평부원군가문)의 9대 紹君(분군) 등이 이어져 甲族(갑족)이라 불리어 世間(세간)에서 여러 성씨 중 門閥(문벌) 차례를 부를 때 延李光金(연이광김)이라 하니 이는 오직 우리 始祖(시조)이래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厚德(후덕)하고 仁義(인의) 찬연한 까닭에 累代(누대) 高官(고관)이 배출되었으며, 고관이라도 聰慧결백하여 權勢(권세)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道臣(역신)하나 없으며, 四色政學(사색정학)에도 관여치 않았으니 그 행적과 덕행을 삼가 사모하여 마지 않을 것이다.

아! 공의 弘德事蹟(홍덕사적)을 당시에 文集成冊(문집성적)하였다면 수십 권이 되었을 터이데 署次(누차)의 軍亂(전란)과 800여년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거의 없어지고, 產存文獻(산증문헌)을 수집하니 事蹟(사적)을 극히 일부분 밖에 적지 못하여 통탄하여 송구함을 금할 수 없도다.

// 서기 1988년 4월, 25세손 華西 乘然 教撰, 서기 2001년 12월 15일, 28세손 松田 京鍾 謹意譯 //

(다) 풍례문 부사공파(副使公派) 지(直 1307-?) 행적

<前略> 인하여 자손들이 연안으로 貢籍(관적)을 삼았는데 여러 차례의 兵火(병화)로 謂牒(보첩)을 逸失(잃음)하고 문현 또한 無徵(무징)하여 660여 星霜(성霜)의 系代(계대)를 딛 수가 없게 되어 한없이 淬嘆(죄탄)스러웠다.

다행히 고려말에 銀青光祿大夫檢校將軍(은청 광복대부 겸교장군)으로 謙(謙) 漢(漢) 호를 默軒(목한) 또는 默齋(목재)라 일컬은 분이 계시어 露隱(포은) 鮑夢周(정몽주)와 同拂及拂(동방급제)하고 벼슬이 左右衛保衞將軍(좌우위보승장군)에다 通禮門副使(통례문부사)에 이르시니, 비로소 一世(일세)로 기록하여 우리 趙李(연이) 四派中(사파중)의 一門(일문)을 형성하고 있다.

선생께서는 가정에선 敎訓(경순)하고 致睦(치목)하셨기로 韓卑間(존비간)에 和善(화롭)하여 命(명)하시면 부지런히 순종하며 원망이 없었고, 朝堂(조당)에선 敎上愛下(경상애하)하셨기로 省臣(군신)이 忠義(충의)로 相接(삼접)하여

王道(왕도)가 행해지고 韓僚(신료)가 忠勤(충근)하니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락하였다. 天性(천성)이 廉正(엄정)하고 泰默(공목)한데가 處事(처사) 또한 거울같이 맑아 藉告(품고)하고 決行(결행)하는데에 私曲(사곡)됨이 없으시니 朝野(조야)가 稟善(칭선)하여 감히 비의(非義)로 대하는 일이 없었다.<中略>

國運(국운)이 黑卵(누난)의 위기를 맞아 朝事(조사)가 흔란해지자 忠良(충량)은 隱遁(은둔)해 버리고 亂臣(난신)들이 繆橫(종횡)하니 時事(시사) 날로 그릇되어 馬鹿(마복)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선생께서는 사태를 일찍 豫見(예견)하고 退遁(퇴遁)하여 하늘의 무심함을 통탄하셨다. 아! 그 位品(위품)은 德器(의기)에 차지 않았고 寿限(수한) 또한 魁齡(학령)을 누리지 못하셨으니 慶嘆(개叹)할 따름이다. 삼가 銘(명)을 짓노니 銘(명)은 다음과 같다.

집을 薦頓(여조)에서 일으기니, 그 家道(가도) 영원히 普盛(창성)하리。  
 大朝(대조)의 流亂(유봉)은, 신처럼 높고 물처럼 깊이 흐르네.  
 黑隱(포은)과 同拂(동방)으로, 訓禮(사직)을 즐고 큰 빛 드리우셨네.  
 默歎(경탄)스런 忠烈(충렬)은, 朝野(조야)가 感服(감복)했네.  
 廉正(엄정)하고 泰默(공목)한 實性(자성), 처사(處事) 또한 明良(명량) 하셨네.  
 모직 構一(정일)하고 오직 和順(화순)함은, 선생의 弘德(총덕)이리.  
 罪曲(사곡)을 물리치고 忠貞(충정)을 나누며, 친사의 직분 다하셨네.  
 험험으로 쌓인 山河(산하)인들, 그 香臭(향취) 가릴 수 없네.  
 좋은 牌石(비석)에 錄(명)을 시기니, 霽子(군자)의 融域(영역)미네,  
 // 諷使公 府君 肆道碑銘, 後孫 正和 錄房 //

연안 이씨(延安李氏) 문중에서 출판된 대종회편(大宗會編) 대동보 외 각 중시조(中始祖) 이하 여러 소파(小派)들의 족보상 중시조 소개가 대동보이 하지만 첫 시조(始祖) 담(唐)나라 중랑장(中郎將)이었던 문청공(文清公) 이 무(李茂) 장군 이후 문중 보전(護傳)

마체 국판과 가세(家勢) 변란으로 인하여 산실(散失)되어졌다고 한다. 또한, 시조는 물론, 4대 중시조 선대의 묘역(墓域)과 성을 연대 조차 불명확한 중에 태자 원사공파(裕宗 1166~?) 단소(壇所)는 경기도 용인시에, 소부간 판사공파(憲烈 1136~?) 단소는 충남 공주시에, 풍례문 부사공파(智 1307~?) 단소는 경기도 양평군 등에 설단(設壇)되었으며, 3대 중시조 외 대장군공파(忠 1204~?)는 함경남도 청평군에 설단되어 국토분단으로 하여 아예, 근거할 만한 묘에 예전의 신도비문(神道碑文) 조차 직접 읽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고려대와 조선초기에 걸쳐 희미한 중시조(中始祖) 행적(行蹟) 이후, 연성군(延城君)이 끈의 삶에서 조차 한편의 드라마처럼 근거될 만한 문집(文集) 유고 한 권이 전무한 상태여서 치열한 음모, 극도의 배신이 애증(愛憎)으로 얼룩진 듯 엿보여지는 추측은 의혹만을 부孱려 놓을 뿐이다. 연성군은 일어버린 편했던 고통스런 조상의 세월을 만화하기 위해 아버지와 더불어 거세게 불아치는 역사의 폭풍우 앞에서 세찬 바람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항상, 의기(意氣)있게 살려했던 그의 밤길은 오늘날 시각에서 추측하건 데 일상사 소재 외 정치역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닐 것으로 어려진다. 특히, 충효열(忠孝烈)에 빛나는 삼한갑문(三韓甲門) 자존심을 지켜가려했던 선조(先祖)의 철법(清廉)한 덕행(德行) 유훈(遺訓)에 따라 의리(義理)로서 살아 보고자 했던 녹왕(鹿窓) 선생의 품고(稟告)하고 결행(決行)했던 그 일생은 지금히 일부를 추정으로나 말할 뿐이다.

### 3. '태자원사공파(太子詹事公派)' 18 지파(支派) 계보 조사

연안 이씨(寧安 '延季') 가문의 3대 중시조 중 특히, 태자 원사공파(憲宗 '원사공파')에서 말하는 18개 지파는 모두 이원발(李元發, 고려 공민왕~조선 태조대 共工判書로 曙左議政, 일명 '의장공파') 후계에서 갈라지고 있다.

- |           |           |             |
|-----------|-----------|-------------|
| (1) 별제공파  | (2) 금성공파  | (3) 미천공파    |
| (4) 소운공파  | (5) 관관공파  | (6) 진위공파    |
| (7) 경주공파  | (8) 벌좌공파  | (9) 재령공파    |
| (10) 사령공파 | (11) 삼척공파 | (12) 내피원정공파 |
| (13) 현령공파 | (14) 전주공파 | (15) 장령공파   |
| (16) 진사공파 | (17) 참봉공파 | (18) 수제공파   |

이원발의 첫째 아들 이귀령(李貴齡, 1346~1439, 강호공, 좌의정) 후손에 의해 소운

공파, 판관공파, 이천공파, 별제공파, 금성공파 5개 지파를 형성하였고, 이귀령의 아우 이귀산(李貴山, 여말선조 문신으로 강원·전라·경상도 관찰사) 증손 이인문(李仁文, 1425~1503, 延安君) 다섯 아들에 의하여 진위공파, 경주공파, 별좌공파, 삼척공파, 대의원정공파 5개 지파와 이 곤(李坤, 1462~1524) 두 아들에 의해 재령공파, 사평공파 2개 지파, 이인충(李仁忠, 承旨) 첫째 아들 후손 네 명의 증손에 의하여 현령공파, 전주공파, 장령공파, 진사공파 4개 지파 그 외는 이인충 둘째 아들 증손 이언각(李彦恪)이 창봉공파로, 이귀산의 끝 아들 이근수(李根粹)가 수재공파로 각기 종중(宗中) 지파(支脈)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 논제(論題) 조사 인물로 녹장(鹿窓) 연성군(延誠君) 이 곤(李坤)을 중심으로 다섯 행체의 지파에 진위, 경주, 별좌, 삼척, 대의원정공파를 제시하고, 두 아들의 지파 재령·사평공파 약전을 정리하면서 다만, 의구심 생기는 문제로서 왜, '연성군' 이 곤과 그의 선친 연안군(延安君) 두 부자를 봉군(封君)을 본파서 증시조 하위지파(下位支脈)를 이제껏 설정해 놓지 못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분출사업을 추진해 가며 증시조 이하의 각 소파를 설정하는 일은 그 어느 일 보다 기본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손자의 소파(小派)는 있는데 아버지(연성군)와 할아버지(연안군)의 소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연성군의 할아버지 희(諱) 근건(根健) 배위(配位) 단양 이씨 '숙부민(淑夫人)파'가 만들 어져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속제불과도 같을 뿐이다.

- <ㄱ>, 진위공파(振威公派) - 通訓大夫 振威縣令 謂 城=통훈대부 진위현령 죄 오)
- <ㄴ>, 경주공파(慶州公派) - 嘉善大夫 慶州府尹 兼 慶州鎮營 兵馬節制使 謂 城(文科)=  
가선대부 경주부윤 겸 경주진관 별마절제사 휘 전(문과) •字 지후(子厚)로 성종  
23년에 칭봉으로서 별시 문과 급제하였으며, 경주부윤을 치렀다.
- <ㄷ>, 별좌공파(別坐公派) - 賢軾大夫 尚玄院 別坐 謂 城=조선대부 상의원 별좌 휘 광
- <ㄹ>, 삼척공파(三陟公派) - 燕 仁惠大夫 吏曹判書 兼 知經筵 齋聖府 春秋館事 仁子 左  
賓客 行通訓大夫 三陟都護府使 兼 江陵鎮管 兵馬同僉節制使 謂 末(文科)=증 자  
현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면 의금부 춘추관사 세자 좌빈객 험 통훈대부 삼척도호  
부사 겸 강릉진관 별마통침절제사 휘 말(문과) •字 말지(末之)로 1466총봉하여  
1526년 증하였다. 연신2년(1496)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증종 원년(1506)에 문과에 급  
제하고 증종반정의 팔경공신으로 녹훈되었다. 송문원 부정자·예문관 겸열이 되니  
김홍조 등 여러 신하들과 같이 상소하여 무오사화(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김종직 등  
의 역할을 들어주고, 유자광 등 무오사화를 일으킨 자들을 살벌관직해마 원다  
는 상소를 올렸다. 후에 총문관 직제학을 거쳐(1521) 통훈대부로서 삼척 도호부사  
겸 강릉진관동침절제사로 나간다. 증손 해고공의 훈위에 의해 이조판서로 증직되

었다.-墓碑銘있음.

<口>, 내의원절공파(內醫院正公派) - 嘉魯大夫 0 0 案判 行內醫院正 謂 夏孫(=증가)  
선대부 0 0참판 행내의원정 휘 하손

<曰>, 재녕공파(載寧公派) - 通訊大夫 載寧郡守 奉 黃州鐵晉 兵馬聽制使 謂 大升(=통  
훈대부 재녕군수 겸 황주진관 벌마철제사 휘 대승)•字 막경(撝卿)으로 연산 3년  
(1497) 출생하여 1550년 풀하다. 단행 활방-장악원 직장-군자감 판관-통례원 인  
의-군기시 판관-본녕부 판관-도총부 도사-한성부 판관-군자감 철정을 지냈고,  
의직으로 흥덕 현감-개남 현감-의성 현령-함흥 판관-재녕 군수를 지냈으며, 통  
례원 좌통례로 증직되었다.-墓地銘있음

<人>, 사평공파(司評公派) - 曾 承政院 左承監 行奉正大夫 掌隸院 司評 謂 公升(= 증  
승정원 좌승지 행봉정대부 장례원 사평 휘 공승)•字 수부(受夫)이고 연산 7년  
(1501) 출생하여 1562년 풀하다. 장례원 사평을 지냈고, 승정원 좌승지로 증직되  
었다.-墓地銘있음.

이로써 <연성군파보(延城君 振譜)>를 증보할 앞으로의 문중 사업이 전개될 때에 한  
과제로서 혼사공파 이하 소파(小派)들을 대폭 개편하여 '연안군파' 아니면, '연성군파'를  
정식 질차에 따라 실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 4. 연성군 두 아들 가계(家系) 분석

연성군(延城君) 이 곤(李坤, 1462~1524)은 연안이씨 '침사공파(詹事公派)' 안에서 제  
11세 후손의 한 사람이다. 그는 장남 대승(大升, 1497~1557)과 차남 공승(公升,  
1501~1531) 두 아들을 두었고, 장남은 '재령공파(載寧公派)'로 소파(小派)를 형성케 하  
였으며, 차남 또한, '사평공파(司評公派)'라고 명명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패마침  
600여쪽 <연안이씨 침사공파 계보>(2000년 간행본)가 출간되었으므로 이 저서를 분석  
자료로 삼아 몇 가지 가계(家系) 내용을 짚어보게 되었다. 아울러, 어느 문중의 족보라  
하더라도 중시조 이하소파(以下小派)는 인간 체내의 모세관(毛細管)과도 같아 한 종종  
의 계보 전체를 총체적으로 취급하기 곤란하여 이 논표(論表)에서는 다만, 종손의 가계  
만을 일례로 선택, 정리하면서 '재령공파'와 '사평공파' 혈제 소파(小派) 사이의 집안 내  
력을 분석자료로 정리해 보았다.

##### 가. 장남(재령공파) 종손 가계도(家系圖)

연성군의 큰 아들로서 12세, 大升(2형제 중 장남)을 필두로 13세, 僉(2형제 중 장

남) - 14세, 齐臣(字子) - 15세, 福(3형제 중 장남) - 16세, 沛渾(3형제 중 장남) - 17세, 自  
馨(2형제 중 장남) - 18세, 楠(字子) - 19세, 道昌(2형제 중 장남) - 20세, 君平(字子) - 21  
세, 宗玉(字子) - 22세, 賞國(2형제 중 장남) - 23세, 黑春(字子) - 24세, 威暉(字子) - 25세,  
觀寧(2형제 중 장남) - 26세, 義淑(字子) - 27세, 聚範(2형제 중 장남) - 28세, 龍學(字  
子) - 29세, 殷渾(字子) - 30세에 이르면서 5세기의 장구한 역사가 꾸며져 왔다.



季大升 墓誌銘(성남, 관교)

'연성군' 이 곤(李坤)의 첫째 아들 대승(大升)은 자(字) 탁경(擢卿)으로 벼슬이 단청 촡  
방-장악원 직장-군자감 판관-통례원 인의-군기사 판관-돈녕부 판관-도총부 도사-  
한성부 판관-군자감 침첨을 지냈고, 회직으로 총여, 개녕현감-의성현민-합종판관에  
이어 재령군수를 역임하였으며, 60세때 별세하여 통례원 좌봉례로 증직되었다. 아내 파  
평 윤씨가 속부인(敵夫人)이 되어 파(母=증 좌승지), 속(假=판관, 통총대부) 2남 1녀를  
낳아 후대를 이어 가기 시작하였다.

재령군(載寧公) 판서 507년의 긴 역사가 겹쳐 온 그 동안, 24.26세 암대(兩代)가 일

연성군의 둘째 아들로서 12세, 公升(2형제 중 차남)을 세 출발로 하여 13세, 俱(2형제 중 차남)-14세, 大老(2형제 중 장남)-15세, 承說(4형제 중 장남)-16세, 故厚(독자)-17세, 震馨(系子)-18세, 聖麟(2형제 중 차남?)-19세, 維漢(독자)-20세, 錦軒(3형제 중 장남)-21세, 素默(3형제 중 차남)-22세, 遇白(系子)-23세, 載九(2형제 중 장남)-24세, 烏俊(독자)-25세, 哲寧(독자)-26세, 義慶(독자)-27세, 聖熙(독자)-28세, 靈圭(2형제 중 장남)에 이르도록 장남과 같이 5세기 동안의 긴 시간동안 종가의 대를 이어왔다.

'연성군'이 곤(孝坤)의 둘째 아들 공승(公升)은 자(字) 수부(受夫)이며, 벼슬이 장례원 사평을 역임하였고, 32세때 불행하게 요절(夭折)하므로써 승정원 좌승지에 즐직될 뿐이었다. 아내 남향(南香)도 속부인(淑夫人)으로 추증되었으며, 간(侃=고성군수, 통훈대부),

14) <민안미서 철사공파계보> 2000.3.민안미서 미친금종종회전, 8-146쪽(重計卷之三)

\*서원증과(寺院證果) 미련증과(迷願證果) 미하드파니(米和尚)가 향교(鄉校)의 문조(門主) 현황[1]

소파명	총 인원	무후(無後)총원	계자(系子)총원	출계자(出系子)총원
사평공파	227명	11명	6명	7명
승 치 공	465명	7명	32명	29명
교 철 공	690명	2명	17명	19명
사 마 공	131명	-	8명	7명
판결사공	132명	1명	8명	9명
사복시공	907명	9명	52명	59명
합 관 공	1,605명	3명	61명	54명
합 계	4,157명	33명	184명	184명

이 자료 결과를 분석하면서 굳이, 제언(提言) 및 가지를 정리하자면 '첨사암파' 이란

[1] 이 책 저서, 10-179쪽(集計자료)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재단은 서울 및 경기도경역의 용인, 판교, 광주, 과천, 이천, 가평, 연천, 양주, 양평, 남양주 외 광주, 담진, 충주, 진천과 고창, 영암, 태안, 남원, 전주 등에서 살아 웠으며, 북한땅의 귀속된 연안, 철원, 평산, 개성, 장단 그 외 몇몇 멀고 가까운 지역에서 집성군락(集成群落)을 이루어 웠음도 정리되어 진다.

이외 연성군(延城君) 녹창(綠窓) 이 곤(李坤)의 선친 연인군(延城君) 이인문(李仁文 1425~1503) 후손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적 인물로 손꼽히지는 이는 40여명으로 짐계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인물은 곤(坤 1462~1524)과 그의 두 아들 대승(大升), 광승(公升) 이후 형벽리에 녹선되고 있는 광정(光庭 1552~1627), 기월(基禹 1556~1622) 후정(后定 1631~1689)을 꽂두로 하여, 진(珍 1600~?), 광정(觀徵 1618~1695), 글씨에 능정(能靜 1584~1637), 목(沃 1641~1698), 만부(萬數 1664~1732), 병화(炳華 1869~1942) 효행자 지남(至男 1529~1577)과 근현대 저명인사로 기억되는 이로서 특별운동가 풍녕(東寧 1869~1940), 원순(元淳 1890~1993) 외 경체인 정립(庭林), 문희(蕙

熙), 재환(彩煥), 철배(哲培), 분녕(奉寧), 의철(義哲)과 학자로서 기만(基萬), 승녕(崇寧), 황녕(恒寧), 지호(智皓) 등이 위대한 인물록에 수록되고 있다.<sup>16)</sup>

### III. 연성군(延城君) 이 곤(李坤) 인물 분석

#### 1. 출생 및 사회 활동 정리

이 곤(李坤)은 조선초기 문신(文臣)으로서 자 자첨(子靜)이며, 호 鹿窓(鶴窗)이다. 강원·전라·경상 3도 관찰사와 행조·호조관서를 지낸 판서공(判書公) 귀산(貴山), 기의 고손(高孫)이며, 증 풍천대부 사복사정(司僕寺正) 겸 내승 행중훈대부 춘한도호 부사 속(續, ?)의 증손이다. 또한, 성균관 생원으로 증 풍정대부 이조참의 근간(根健, ?-1455)의 손자로서 아버지는 휘(暉) 인문(仁文, 1425-1503)이며, 그는 문과에 급제되어 벼슬이 사헌부 감찰·군기사·월정·평안도사·행조좌랑·선공감 정·양주·월원목사·대호군 등 내외직을 두루 거쳤고, 풍정대부로서 병조참의·첨지증주부사를 지냈던 이었다. 후에 순종 보조공신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동지경언 춘추관 의금부사(純忠輔祚貢臣 嘉善大夫 禮曹參判 兼 同知經筵 春秋館 義禁府事)에 봉군(封君) 증직(贈職)된 연안군(延安君)으로 행집총장군 첨지증주부사(行折衝摠長軍 衆知中樞府使) 아버지와 어머니 이씨 사이에 6형제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큰 형은 진위현령을 역임한 진위공(振威公) 모(塙, ?), 둘째 형은 경주부윤을 역임한 경주공(慶州公) 전(典, ?), 셋째 형은 삼의원 별좌공을 역임했던 별좌공(別坐公) 광(光, ?) 그리고 손아래 아우는 흥문관 직제학을 거쳐 풍천대부로서 삼척도호부사 겸 강릉진관 등 험절제사를 역임했던 삼척공(三陟公) 말(末, 1466-?), 광 아우는 내의원정을 역임하고 가선대부·참판에 증직된 내의원정(內醫院正) 하손(夏孫, ?) 등이다.

아내는 군수 유순행(劉順行) 명문가의 딸님으로서 일생동안 가훈(家訓) 다스림이 침숙하였다. 만년에 풍질에 걸려 1524년, 5월 14일에 작고하였고, 7월에 광주(廣州) 고을 남쪽의 판교(板橋) 서쪽 건좌(乾坐) 병향(丙向) 언덕에 한참(合葬)하였다.

한편, 녹창(鹿窓)은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장남 대승(大升, 1497-1557)은 단청 활방이었으나 촛날에 장악원 직장·군자감 판관·봉례원 인의·군기사, 평녕부 판관-

16) 이관희, <연안이씨 홈페이지 출발자로> 中에서

도총부 도사-한성부 판관-군자감 험정을 지내고, 계속하여 외직으로 흥덕, 개녕 현감-의성 현령-합흘 판관을 거쳐 재행 군수에 임했다. 그리고, 증직(贈職)은 통례원 좌봉례로 대를 이었다. 차남 공승(公升, 1501-1533)은 사용원 주부였으나 후에 사헌부 감찰-장례원 사령(司諁)을 역임했고, 승정원 좌승지로 증직되었다. 딸은 조방주(趙邦柱)에게 출가했다. 한편, 측실(側室)에도 2남이 있어 휘(謙) 복승(復升)과 만승(萬升)이다.

\* **添附:연성군 계보<表> 수록 자료>**



녹창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헌식 충명하고 명민(明敏)하므로써 약관 21세 때 (성종 14, 1483년)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30세 (성종 23, 1492년)에 식년문과(式年文科) 병과(丙科)로 급제되어 승문원(承文院)에 보직받았다. 이후 병조정랑-사간원 현납-성균관 사예-사헌부 장령-장악원 험정-황주, 해주 목사를 거쳐 밀양부사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중종 원년(1506), 중종반정(中宗反正) 때 공을 세우므로 병충분의 정국공신(秉忠奮義封國功臣) 4등으로 황실록에 기록되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환지 중추부사-에 조참의-장례원 판결사가 되었다. 녹창의 62세 되면 1524년(중종19)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모위장(五衛將)으로서 창경궁 직소 중에 득약이 끓어있는 음식으로 인하여 많은 의혹속에 변사(變死)를 당하였다. 이같은 춤번에 이르자 중종(中宗, 1488~1544/조선 제 11대 왕으로 在位 1506~44년)은 묘조(廟朝)에서 유사(有司)로 하여금 예장(禮葬)을 치제(致祭)케 하고 한편, 4개월 보름 동안에 걸친 사건 추국(推鞫)에 임했으나 확실한 단서를 얻어낸 반면, 복합 주범은 찾아 내지 못한 채 의심되는 가노(家奴)들을 방면(放免)하는 것으로 사건 마무리를 시켰다. 그 후 녹창에게는 자현대부 예조판서 겸 지경연춘추관 의금부사로 증직(贈職)하고, '연성군(延城君)' 봉호(封號)의 예우를 받은 이었다.

## 2. 녹창(鹿窓) 이 곤의 관료생활

조선 왕조 정치는 유교적인 융도정치(王道政治) 구현을 최고 이상으로 삼아 절대 왕권하의 문무(文武) 양반관료에 의존했다. 그러므로 국왕과 관료간의 조화속에서만 정치는 이루어 질 수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문반(文班)들이 무반(武班) 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던 게 사실로 드러난다. 이런 역사속에서 연성군 녹창(鹿窓)의 직계인 증조부<증 봉춘대부 사복시정 겸 내승 행증총대부 춘천도호부사>는 그의 넷째 아들 휘(暉) 근수(根粹) 혼사문체가 태종과 악연(惡緣)으로 얹혀져서 끝내 장 100대를 맞으며, 서인(庶人)으로 강등되고, 재산몰수와 함께 온 집안이 관노(官奴)로 전락되는 불행한 균경에 처하게 된다. 이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불운했던 가문에서 증조부의 폐고된 신원(伸冤)을 살소(上訴)로 물려나게 한 이가 녹창의 부친 연성군(延城君) 휘(暉) 인문(仁文, 1425~1503)이었다. 그러므로 군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지 못했던 선대(先代)들의 힘겨웠던 환경 속에서 출생하고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던 '녹창' 일생동안의 시대상황도 정치외견 제시 통해서는 어느 정도 엿져져 있었을까 몰라도 험통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조의 모든 정치권력은 소수의 고급 관리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등과(登科)의 길을 얻어 낸 녹창은 생원시와 식년문과로 학격되어 정치권 진출이 출세의 지름길이긴 하였으나 상당한 제약이 있는 청년시절의 출사(出仕)였다. 승문원·사간원·사헌부의 초급 문관 직책을 담당했던 연산군 시대의 '녹창' 관료생활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연산군 집권말기에 이르자 밀단 관리로서 최악의 수모(受侮)와 고통이 안겨 들었다. 다름아닌 장(杖) 70대의 추국(推鞠)을 두 차례나 겪었고, 파출(罷黜)의 형벌로 불명예 고초를 당하는 연산군 시절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의 나이 40대에 오른다. 이처럼 '녹황'의 중년기 관료생활은 불행·분노의 연속이었다. 문반(文班)의 후예로서 좀더 영예롭게 걸어보려 했던 관료의 생각은 물건들이 편 채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고통과 치욕의 어혈(瘀血)이 깊게 얼룩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녹황에게도 끝내 행운의 기회는 찾아 들었다. 그 일은 다름아닌 중종반정(中宗反正)의 혁명적 전환기에 그 자신이 직접 반정(反正)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정권교체기에 통조세력 한 사람으로서 폐주(廢主) 연산군 일파들에 대한 증오심을 일시에 쏟아 낼 수가 있었던 셈이다. 양반가 사대부 집안의 후예(後裔)이면서도 상당한 고초와 면시를 받아왔던 녹황에게서 신분상승의 기회를 만나 후에 폭정(暴政)을 일삼았던 연산군을 일부 관료들의 투쟁터에 의해 폐위·추방하게 되므로써 폐주(廢主)를 교통 인치소에 직접 흐송 책임을 맡았던 녹황은 일약, 본의정국 4등 공신 반열에 올라 정3품 통정 대부에 녹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중종 3년부터 관결사·관암사·첨지증주부사·내금위장 겸 승문원 부제조와 발양부사·택현군수 등 내외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또다시 20여 차례 대간(大諫)들과 사헌부(司憲府)로부터 근질기게 직접 공격을 받아 끝내, 힘겨운 공직생활은 만만치 않게 관리 사찰을 재차 당하게 되고 말았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를 꽂 군데 <실록(實錄)> 자료로서 종합하여 추정해 보자면, 녹황은 시대적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게 소용돌이에 휘말려 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양반 관료정치의 구조적 분열과 모순점이 각 파별 족당, 학파에 의한 사제관계로 맞물려 대립이 격화되었던 시기에 살다 간 '녹황'은 기성세대와 신진 사류(士類) 사이에 지목받는 대열에 끼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녹황은 통조하였거나 배척당한 인물로 두어 차례 파직·유배의 쓰라린 세월을 살았었다. 가슴속에 사무친 굽육감 내지 인간 혐오감으로 좀 더 정직한 관리(公吏)의 일상을 살고 싶었던 그에게 파멸의 수모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녹황'은 혁신계열의 주도세력은 아니었으며, 통조세력의 관료 한 사람이었다. 다만, 중종에 의해 30대의 신진 사류(士類)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일파가 대거 관계(官界)에 진출하여 점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급기 정권 주도층 사이엔 험예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급진적 성향의 철인(哲人) 정치를 이상(理想)으로 주창하는 경향은 기성관료나 공신들에게 반발로 나타났고 드디어, 현실을 무시하고 봉당정치를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중종의 마음을 되돌려 조광조·신진 일파를 급기야 정권에서 몰아내는 일명, '기묘사화(己卯士禍)' 사건 통조에 연루한 세력으로서 '녹황' 말년에 이르러 그는 관직을 잠시, 빼앗기는 고초를 또 한 차례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불운의 관료생활을 맞은 녹황 자신은 잠시일 망정, 외직(外職)으로 물러나 있

다가 얼마후에 중종이 결에 두고 아껴 쓰려고 불러 들였던 것 같다. 다시 복직된 '녹황'은 훈련부사-여주목사에 등용되었으며, 잠시 후 궁궐 내직 정3품의 모위장(五衛將) 벼슬로 옮겨지면서 연산군 시절의 온갖 고초는 잊혀질 수 없는 과거사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중종으로부터 좀 더 확실한 총애를 얻을 수가 있던 녹황 자신도 그 임금에게서 마저 한 차례 벼슬을 받았다가 재기(再起) 따바자에 다시 몰라 서는 관료생활의 화비(喜悲)가 교차되는 속에 순탄치 못한 녹황의 일생은 어쩌면, 한 편 연극의 소재와도 같아 보인다. 거듭되는 정쟁(政爭)과 육사(獄事)에 실한 타격을 받았던 녹황 자신은 꿈까지 자신의 지조(志操)를 버리지 않은 채 정치적 혼란 세상을 그려도 공명침대하게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했다고 판단되어진다. 왜냐하면, 실록에서 찾아지는 중종 재임시절의 20여 차례에 걸친 반대파 정치 지도자들의 끈질긴 관직삭탈과 유배처형 상소(上訴)를 임금 자신은 대부분 승인(允許)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반의 자체로서 그 자신은 정권의 장부에 나선 적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 명예를 지키고 대립된 세력 그 어느 편이라기보다 충직한 관료로서 제 모습을 지켜가려는 일면, 꿈작자로서 바쁜 세상을 여는 시대변화에 충성을 다 바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온갖 고통의 연산군(燕山君 1476~1506) 시대, 말단 관료(官僚)였던 녹황은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를 목격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로 하여금 정변(政變) 소용돌이에 휘말려 드는 자신의 신변을 예감할 수가 있었다. 거세게 몰아치는 궁중세력의 힘으로 하여 훈구세력과 신진세력이 완전 물ぱ당하였을 때 녹황 자신은 장(壯) 70이란 처벌을 받기에 이른다. 뒤이어 원자(元子) 진성대군(晉城大君)을 봉립하는 중종反正(中宗反正 1506)에 합세되어 그 기쁨도 10여년 세월일 뿐, 대사헌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대사간(大事諫)들의 분쟁사비에 정신적으로 합세하므로써 재차 밀어 닥친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는 또 한 번의 파직(罷職)을 당하는 불행이 덮쳐 올었다.

그러니까 녹황은 신진사류(新進士類) 측근 뼈심 관료로서 생각이 꾼고, 행동이 반듯하므로써 관료들의 부정(不正)을 판별해야 했으며, 죄인 국문(鞠問)과 법령집행, 정치권 세가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가려는 데 전심전력을 다 하려 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외정부 6조와 정치 뼈심요원에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서 거즈잠스러운 정적(政敵) 계열에 지목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기록에 드러난 인물평(人物評)

(가) 족보(族譜)에 기록된 평문(評文)

"공은 충명하고 명민하여 학문에 힘쓰니 서당에서 글 배울 때 항상 장원을 차지했다. 문과에 급제하여 행조에 있을 때 죄인의 징상을 밝고도 기민하게 처리하였으며, 사헌부에 있을 때 뛰어난 식견으로 불의를 규탄하는데 흔들림이 없이 직무를 다 하였으며, 아울러 첨국공신에 녹훈 되고 나아가서 주(州)와 부(府)를 다스릴 때는 마음이 너그럽고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밝고 엄하게 하니 할리나 백성들이 편안하게 따르면서도 두려워하였다. 뒤에 장례원 관결사로 가서 송사를 벌리에 따라 판단하니 곧을 칭하여 '엄숙 단정하고 굳세니 그 풍채가 으뜸'이라 하였고, 꽉고 많음을 가리지 않고 칭유하였다."



李旼(李旼) 묘비문

## [나] 묘간(墓誌)에 기록된 평문(評文)

"범조좌랑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고 얼마 안되어 사간원 현납에 배임되어 일을 떠나면 조사하여 탄핵함에 조금도 뛰어거나 굽함이 없었다. 얼마 뒤 행조정랑으로 옮겼다. 자세히 평의하고 명민하게 하여 주부시 첨정-성균관 사예-종친부 천섬-사헌부 참판으로 승진하여 집론이 과강하고 뛰어난 식견이 있었다. (中略)

또다시 밀양부사와 여주목사에 배임되어 부임하는 곳마다 '마음이 너그럽고 까다롭

지 않으며, 엄숙하고 명백하여 관리는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덕을 사모'하였다. 장례원 판결사가 되어 '소송을 결단하여 다스림에 공을 으뜸이라 칭하였다'.

공은 풍채가 준엄하고 단정하며 엄숙하고 굳세어 부합함이 적어 교유를 일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벌로부터 나왔고 또 명망이 있었으나 지위가 높지 않아 그 재주를 시험하지 못했으니, 식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록된 평문(評文)

이 곤은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 자는 자점, 아버지는 인분이다. 1492년 삭년 문과에 별과로 급제하였다. 1498년 병조좌랑, 현남을 지냈으며,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문은보와 함께 실문을 받고, 장 70의 처벌을 받았다.

1506년 9월 중종반정에 참여한 공으로 정국공신 4등에 녹훈되고 연성군으로 봉해졌다. 공이 없으면서도 주모자에게 칭탁하여 공신에 올랐다는 평을 받았다. 1511년 원자중주부사로 관찰사가 되어 맹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밀양부사로 외보되었다. 이 때 사헌부, 사간원으로부터 밀양과 같은 큰 읍을 다스림에 부적합한 인물로 체직을 청하는 판핵을 받기도 하였다.

1519년 대사헌 조광조, 대사간 이성동 등의 정국공신에 대한 사훈 조치로 같은 해 11월, 사립파의 주장에 의해 부당하게 책봉되었다는 이유로 공신 위호가 사특되었다가 기묘사화 이후 다시 복적되었다.

그 후 원원부사, 예주목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1524년 2월 창경궁 죄소 중에 만두를 먹고 독살되었다.

침부에서 캄시하고 수사한 끝에 거느리던 노비들에게 독살되었음이 밝혀졌다.

세 편의 인물소개를 종합해 볼 때, '녹향'은 오랜 세월동안 문중 자료와 국가연구기관에서 수집 정리한 근거가 상당히 멋갈리고 있다. 물론, 선대(先代)를 모시는 문중 후손들의 영향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묘역 신도비 내용이요, 각 소파(小派)별 족보 문현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된 채 부침적 내용 보다 한사(漢辭)가 다소 끼어 들긴 하겠지만 인물평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다 하더라도 관교들의 문중 묘역내에는 총 17기의 5~6대 선조 묘군(墓群)들이 500여 년 이상 보존·관리되어 있고, 지역주민이 도시개발로 인하여 학교와 도로가 무분별하게 관통되므로써 그 묘역내 여래 금석문의 보존대책은 세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해 가는 명소(名所) 만드는 일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그의 묘역네 금석문들이 지방문화재 가치성이 부여되어져야 할 것인 지와 그 당시 시대상황을 직시해 볼과 함께 '녹황' 인물 분석에 좀 더 인간 진면목을 추론해 볼 필요를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과거의 비중만 논하다가 자칫 새 역사만 만들다 마는 전통부재(傳統不在)의 무지(無智)를 범 할 수 있다. 비슷한 일례로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는 남의 역사(歷史) 조차 제 것으로 만들기를 서슴지 않음을 비교해 볼 때에 성남지역에 서의 전통명소(傳統名所) 보존사업은 응당 차질없게 추진되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 4. 녹황(鹿窓) 인물 분석

누구나 일평생 동안 이룩한 여러 가지 결과에서 개인마다 어디에 더 의미를 두느냐가 중요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뜨거운 충신과 지극한 효행, 절대절명의 순교와 온갖 비리를 외연한 정의로운 삶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감동을 전할 까지지 않을 예술 흔들 불러 일으키려면 술한 예술·문화인과 다양한 각 분야의 잠인(隱人)들이 역사 갈피마다 다양한 광채를 발하여 웃 사람들을 하여금 관심과 추앙을 받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파란만장한 생애동안에 선과 악 길목에서 머뭇거릴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목표했던 과제를 향해 나름대로 고뇌에 찬 갈들의 순간을 겪게 마련이다. 이같은 다채로운 인간 군상(群像)의 육망에 찬 삶의 역사를 녹황의 60년 연자(年齒) 속에서 한 마디로 표현한다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그러나, 녹황 자신이야말로 '시대의 변화'를 감망했던 양반 후예로서 사리 판단력에 타협을 의연한 채 수많은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원심(懇摯)을 한 몸에 실어야 하는 공직자(公職者)라고 평해 볼 수가 있다. 원리원칙에 일관하여 바른 말 잘하는 강직함의 인성 때문에 남들에게 인심을 못 얻은 그는 '나무가 부러질 지언정, 헤어질 수는 없다' 하듯이 적당히 타협을 할 수 없는 좌우수행으로 인하여 주위사람에게 호평을 받을 수 없는 이었다. 충남 지금에 이르러 다만, 연성군 자신의 글이나 목소리가 담긴 <본인의 변(辯)>을 들고 읽어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골탕치 못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녹황(鹿窓)이 반대파로부터 판핵을 받기 시작한 때는 36세로 문과에 급제된 지 불과 6년째 되던 젊은 나이였다. 연산군 4년(1498년)에 연성군(延城君)은 사간원 현납(臣5품) 곧이어, 그는 사헌부 장령(正4품)에 제수되었다. 밭은 좌무는 응당, 점치를 논하며 모든 관리들의 어긋난 비리(非理)를 조사하고 규탄하면서 '바쁜 세상'을 위해 총작하는 게 '녹황'이 해야 할 공무(公務)였다. 그러나 녹황 자신이 비위공리(非違公吏)로 지목

되는 이의 죄상을 상황 앞에 아뢸 때마다 번번히 기각 당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그에게 안겨지는 건 지탄받아야 될 해당 공리들에게 맡시 원한의 화살 뿐이었다.



연성군 李坤 姚길(성남, 관교)

한편, 녹왕의 40세때는 오히려 누명에 끌려 물가미를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른아닌 1504년 10월, 의금부 징계 상소에 의해 '장(杖) 60대 추국(推鞠)과 장 70대 유배(流配)의 중벌(重罰)로써 형이 집행되면서 관문(官門)에서 파출(罷黜)' 당하는 사건으로 연루(連累)되고 만다. 만약, 폐덕(悖德)한 연산군이 그 즉시 폐위되지 않았더라면 녹왕의 모친 세월의 불행한 죄인으로서 유배생활도 신원(伸冤)되지 못하였을 것이 자명하다.

하마터면 춘천도호 부사였던 증조부 속(續, 증 사복시정) 선대(先代)에서 파멸 질타를 받아 삼처투성이로 아프게 살다간 서인(庶人) 가세(家勢)가 또 한 차례 긴 곤경 속으로 빠져들 편 하였다. 그러나 병조참의 윤지증후부사 연안군이던 아버지 인문(仁文 1425~1503, 통정대부)에 의하여 집념어린 상소로 들파(疊科) 문호를 열어 연성군 녹왕 세상에 이르자 또다시 그의 죄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 조차 영구히 현대받을 서인 신세가 자차를 범 했었다. 그러나 현관대행이었던 것은 사간원과 사헌부로부터 투수해 체직(遞職) 요청을 당한 연성군에게 달리 군주이던 증종(中宗) 자신은 번번이 부결(否決)로써 물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연성군의 관료생활 하루하루는 실로 비통하였다.

것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반대파들의 팔팔대 때문에 녹황의 곤장 맞았던 피거사가 결렌을 일으키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두세 차례 사화(土禱)에 직간접 동참의지를 밝힌 녹황의 인생 이정표는 누가 뭐라해도, “연산군은 폐주(廢主)되어야 하오.”, “조광조 선비는 미망히 살려 내어야 할 분이오.” 라 하면서 흔들림 없었던 고집 때문에 밀어 닦치는 불행의 순간도 그에겐 새 아침 찾아 올 날이 있을 걸로 기대하였지 않았나 추측 해 본다. 하여, 중종반정(中宗反正) 때에 폐옹 연산군을 교통 안치소에 직접 이송책임을 맡았던 곳로 의해 녹황은 공신전(功臣傳)에 분의첨국공신(奮義靖國功臣) 4등에 기록되는 전교를 얻게 되었다. 판결사·민양부사·재임 중에 끊임없이 녹황의 기량과 인품에 합당치 못하다는 사헌부 건의에도 충종은 천교하기를 “이 곤은 정과(正科)출신이니 어찌,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라 하여 윤허처 않았으며, 유 순(柳淳)도 직필 “신이 형조판서로 있을 때, 이 곤이 낭관(郎官)으로서 자못 일에 민첩하였으니, 그가 어찌 판결사에 합당치 않겠습니까.”하였다.

조선실록에서는 “정국공신을 확정할 때 진항에 끌어 앉아 올면서 훈적에 기록되기를 예길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비웃고 힘들 뿐었으니 –> [충종 실록: 3년 1월 18일]의 악평(惡評)도 있으며, 그 후 <밥모하고 쓸모없고 염치없는 사람>이니 제직하라는 18회에 걸친 사헌부와 대사간의 요청때마다 충종은 윤허하지 않은 채 부결(否決)했다.

수없이 이어지는 생즉멸사(生即滅死) 속에서 진실로 도덕적인 일이 무엇이며, 위선(偽善)없이 공평무사한 평화의 세상을 갈망한 옛 어른 지도자들의 뒷 모습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그 어떤 확대경으로 비춰야 할까는 심히 조심스러운 바가 있다. 그의 비굴한 것 같던 삶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결국, 나라 임금이 인정했던 쓸 만한 관료였기에 시기(詩句), 질투의 첫 번째 대상으로 남아 녹황(鹿窓)은 끝까지 고통받으면서 살다 간 중간 계층 공리(公吏)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역사 서술은 습리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끈질기게 펴붙던 악당과 진흙탕 끝 혀진 팔팔매질에 가위 놀린 녹황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인간 대변자 역할을 뚜렷히 해 오면 중종 조차 결국, 반란 모의 혐의자로 구속 분초케 할 때도 있었다. 뒤이어 이어진 조광조 복직의 탄원서 등조자로서 관직 삭발도 당하며 끝내는 복관(復官)의 기회를 얻어 철원부사·예주목사의 외직(外職)에서 재차 내금위장(內禁衛將) 겸 오위장(五衛長)에 보직을 담당토록 왕으로부터 신임을 재차 받았었다. 왕궐 겸에서 보다 신임을 받는 공리(公吏)의 민물 노릇을 전담하면서 녹황은 인생 노년기에 접어 들었다.

녹황의 죽음은 불길했고 의혹투성이 알록진 생으로 음식 속에 넣어진 독극물에 의해 62세 되던 중종 19년, 때는 1524년 2월 5일에 무참하게 득살(毒殺) 당하였다. 헝겊궁

입직(入直)으로 집안 하인들이 날마다 큰 만두를 먹다가 그들의 치밀한 모의에 의해 부활하게 생을 마감한 걸로 기록되어 있다. 사내종 죄죄와 계집총 실종 내외가 해민서(惠民署)의 하인 연금 집에서 비상을 사다가 소반에 만들어 놓은 만두 15개를 조개 약을 넣었다가 직장 아근 해임자 아침 식사로 운반해 준 것이 죽음을 달하게 된 것이라는 사건 전모가 기록으로 전한다. 무려 4개월이 넘도록 하인들을 심문하고 죽이면서 고문 끝에 의심되었던 나머지 하인들 가지 소쇄를 방면(放免)하게 된 것으로 외혹 투성이의 독살사건은 끝났다. 그러나 사실, 반대파들에 의한 여러 번의 모함이 제기된 기록문에서 조차 당사자 '녹황'의 혁명성 답변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게 미실까지 많을 수가 없다. 한편, 독살 의혹사건 실문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어찌 된 일인 지 '녹황' 유가족들의 심문조서 답변이 한 마디 언급된 적 없음도 또한, 근원적 의구심을 품게 된다. 어찌, 양반집 하인들이 권력층 전용 외료 기관에 해당하는 해민서 하인들에게서 비상(砒霜)을 구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인지? 당시 월자했던 신분조직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궁금증이 즐비된다. 하므로, 가장 즐비한 역사의 평가는 그 시대로 들어가 보아야 한다는 창설(定說)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계로 남게 마련이다.

#### IV. 맷 음 말

지금까지 연안 이씨 가문의 '험사공파(韙事公派)' 후손 한 사람 연성군 이 곤 선생에 관하여 가계(家系)와 삶의 행적을 조사해 보았다. 아울러 '녹황' 이 곤(李坤)의 인물 분석을 편자 나름대로 추측·정리하면서 녹황(연성군) 외 후손들의 근거별 만한 자료가 영성(零星)한 형편에서 고작, 역사속 시대흐름을 들추어 보는 수준으로 논구(論究)의 힘겨움도 적지 않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삶의 몇에 걸린 인간 모습'은 수없이 만날 수가 있겠지만 족보와 금석문 몇 줄 외 의구심 생기는 <조선실록> 근거에 따르자면, 녹황의 가계(家系) 분석에 숨겨진 이야기와 3대 종시조 이하 여러 지파(支派)의 혼잡한 난립현상을 가계 족보에서 짐작할 수 있으며, 종시조 이하 이름뿐의 지파(支派)들에 관하여 재점립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한편, 500여 년 가까운 세월 속에 세워진 6~7대 선후 가족묘역 안에 즐비한 통비(通碑)의 주인공 인물 묘산도(墓山圖) 작성작업과 함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들을 오늘의 학술토론회 성과로 결론짓고, 미불어 판교지역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여론형성과 세부적 문화사업 설계가 꾸며져야 할도 제언해 둔다. 가령, '연성로' 일대에 '낙생(樂生)시민공원' 또는, '판교(板橋)시민공원' 조성과 함께 노거수(老巨樹) 느티나무 사람숲관, 판교 줄다리기 전통문화 보존회관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큰 인물이 아니었던 녹황 이 곤일 망정 흥미진진한 역사 비밀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실마리를 풀어 주지 못한 채 항로역사의 계승, 발전 차원에 급급한 나머지 필자로서는 다음 몇 가지 결론으로 연구자의 부담을 제언(提言)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 (1) 3대 중시조 외 연성군 일가의 역사적 근거 자료가 벌 문중차원에서 수집·정리되어 학술적으로 분석·검토되어 나가야 하겠다.
- (2) 중시조 이하 하위소파(下位小派)가 정리·정돈되고, '연안군', '연성군' 지파(支派)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되어야 하겠다.
- (3) 판교지역 개발에 있어서 500여 년 선대를 '연성군 묘역' 20여 기 와 그 둘레의 옛비석 10여 기를 전통문화유산 보존차원에 의거, (가령) '낙생시민공원' 또는 '판교시민공원'으로 조성토록 전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 하겠다.
- (4) 문중에서 5회에 걸쳐 발간된 대동보(大同譜)와 각 파보(派譜)상의 종가 후손의 가계에서 '무후(无后=자식)이 없었던 선조(先祖)들의 '계자(系子=문중 자녀로 양자 대 및 기)'가 숫자상 현격한 차이를 보임.
- (5) 연성군은 문반(文班) 후에로서 불운했던 선대(先代) 분위기속에 군주에게서는 두터운 신망을 얻은 반면, 사화(士禍)의 소용돌이에서 반대파 침객(政客)들로부터 무수한 짜작(讒諫) 탄핵상소를 받아 곤장, 유배, 관직삭제, 복권 등 고통당하면서 끝내, 폭살로 유명(幽明)을 달리하기까지 의혹을 품을 만한 사건현장의 자료가 별로 없음.

손환일(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통연구원 / 미술사학)



하는 정도이던 것이, 점차 사자를 추모하고 생전의 공적을 치양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징표로 변질되었다. 특히 왕실의 능이나 일반 묘소 앞에 세우는 능묘비가 유행하였는데, 조선시대 능묘비가 유행한 것은 풍치 치배 이념이었던 성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지배층들은 유교의 윤리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조상에 대한 숭모정신은 일정한 격식에 따라 묘비를 건립하였다. 특히 사대부들은 묘비의 입석행위가 선조의 덕을 밝히고 현양하는 행위로 보았으며 동시에 예의 실천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조상의 사적을 비에 새길으로써 가문의 빛남을 자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써서 당대의 저명한 문장기에 통하여 비문을 짓고 이를 낸 서예가의 글씨를 받아서 화려한 비를 세웠다. 비석은 대부분 당시의 귀중한 역사·문화·문화·문자학·서예 등의 종합적인 자료가 된다. 비석의 구조나 형식·서체는 미술사적으로 서예·회화·조각 등에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延誠君 李坤(1462~1524)의 묘길은 비두와 비신이 함께 조각된 통비

석으로 비두의 조각이 매우 뛰어나다. 본고에서는 비석의 양식과 비두의 문양, 비신의 서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I. 비석

비석의 종류로는 묘비·탑비·능비·신도비·사적비·정려비·유허비·기공비·송덕비·효자비·열녀비 등이 있다. 묘비는 죽은 이의 관직·이름·가계·행적 등을 새기는 데 내용과 형식에 따라 墓碑·墓碣·墓表·墓誌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銘이라는 銀文이 포함되면 銘字가 붙는다.

墓碑는 무덤의 床石 우측에 세우는 비다. 橋山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에 비와 갈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묘갈의 跌石(碑臺)은 네모나고 碑頭는 둥글며 5품 이하의 관원만 사용하였다. 옛날에는 碑와 碣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런데 후세에 관직의 등급분체로 인하여 그 명칭을 구분하였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도 비슷하여 銘의 유무는 짓는 이의 자유다. 오로지 갈이라 하고 도리어 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명칭은 묘갈명이라 하고 명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여 비와 갈은 외형상의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墓表와 墓碣의 명칭은 묘비의 양식에 관계없이 명문의 제목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들은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그 문제는 신도비와 같으나 신도비에 비해 규모가 작고 빈약하며, 원수나 규수가 일반적이다. 묘갈은 죽은 사람의 성명·世系·행적·생몰년·장례일·자손의 개황 등을 품에 새겨서 무덤의 표지로 삼고, 죽은 사람의 업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운다. 묘표는 묘갈보다 훨씬 간단하여 관직명·성명·생몰년의 기록이 일반적이다. 경국대전에 “正三品 이상은 神道碑를 세우고 그 이하는 墓碣을 세우도록”하고 있어 碑碣이 널리 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文體辨》의 묘갈문에 보면, “潘尼가 潘黃門의 묘갈문을 지었다. 묘갈문을 짓는 것은 풍나라에서 비롯되었다. 唐나라의 묘갈 제도는 받침들은 모나고, 머리 부분은 둥글며, 5품 이하의 벼슬에만 세웠다. 옛날에는 碑과 碣가 통용되었고, 후세에 벼슬등급으로써 명칭이 구별되었으나 실지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다. 조선 중기까지는 묘갈보다는 묘비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속종<sup>17)</sup> 때 와서야 墓碣銘이 등장한다. 서문의 표지에 따라 묘갈과 묘비

나의 遺稿이다. 양하고 양도를 놓아서 사랑하여, 그리고 墓道개조 碑碣을 세주시 말고 작은 틀의 전면에 '遇陶晚隱眞城季公之墓'라고 쓰고, 그 후면에 내가 치어든 風文을 새기리."

하였다. 그로부터 해월 후 죽었는데 문이 두 번이나 상소하여 예장을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는<sup>19)</sup> 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 만큼 묘비 양식은 다양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묘비의 제작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당시의 문장가와 명필을 구하였다. 尹淳은 文學을 좋아하고 楷書에 능하였으므로, 경대부들이 墓碑와 墓表를 세울 적에 은순의 글씨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부끄럽게 여겼으니, 옛날의 名筆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나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sup>20)</sup> 그러나 그 폐해가 심하게 되어 "凶庶들의 墓墓에 세운

17) 속종 015 10/05/13(우진)

18) 속종 020 09/02/28(임술)

19) 선조 004 03/12/01(갑오)

碑碣이 법제를 어기게 되었습니다.<sup>21)</sup>라 하였으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면 사례의 변화로 담정이 침화되고 이에 예학과 보학이 발달하면서 가문의 현장을 위해서 신도비가 많이 만들어 지게 된다. 16세기부터 유행된 신도비의 건립은 17세기에 이르러 그 전성기에 이르며 18세기 이후는 그 규모가 작아지며 쇠퇴하게 된다.

墓碑文의 문체양식은 碑·碣·表·誌 등 4종류가 있다. 이 외에도 佛骨의 塔碑, 帝王의 鎮碑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있고 神道碑와 같이 묘소입구에 세워지는 것도 있다. 墓表는 上下貴賤의 구별 없이 墳前近地에 세웠는데 그 모양은 神主의 모습을 본든 것으로 死者의 本質·諱·官職 등을 기록하였다. 비문의 문체는 篆文으로 된 書와 文文으로 된 跡으로 대별된다. 서와 명으로 된 비문을 대개 碑銘并序 또는 碑銘이라 부른다. 序 없이 銘으로만 된 비문이나, 명이 없이 서로만 된 비문도 있기는 하나, 이런 것은 碑頭 또는 碑記라 하여 따로 구별하기도 한다.

序는 비문을 쓰는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본문에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銘은 4언·5언·7언 등의 문문으로 이루어진다. 銘에서는 짧고 화려한 수식을 통원하여 공대를 찬양하고자 <詩經>의 頌이나 雅와 같은 전아한 시가에 그 근원을 둔다. 명이 없는 비기는 원래 한문 문체의 記에서 온 것으로記事를 뜻하는데, 사적비 따위의 사실을 기록하는 비문의 많은 부분이 이런 비기의 형식을 취한다.

비석의 양식은 碑臺, 碑身, 碑頭 등으로 구분되었다. 碑臺(臺石·羅臺·盤石) 위에 碑身이 있고 碑頭에 加檐石을 얹는다. 비신에는 死者的 관직·본관·성명·행적·자손·생몰연월일·장지의 위치와 방향 등을 기록한다. 碑臺는 臺座·地臺石·碑座라고도 한다. 거북이 조각된 龜趺가 있으며, 잠방형인 方趺가 있다. 碑頭는 끝 없는 용이 조각된 龍首가 있고, 莲紋이나 蓮花紋이 조각된 경우도 있다. 개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비신 상부가 둥글게 생긴 모양이면 圓首, 모서리에 角을 접었으면 圭首, 모서리에 각이 있으 면 直首로 분류한다. 碑身은 侧面이 좁은 장방형이고, 앞면에는 쪽은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지고 뒷면에는 陰記라 하여 비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과 年記가 새겨지고 있다. 비신과 이수가 하나의 둘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碑臺·碑身·碑頭 등이 하나의 둘로 된 것은 組碑라고도 한다.

양식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비는 승려의 탑비가 대다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 唐禮式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나, 왕과 고려에 걸쳐 유령한 승려들의 탑비(부도비)에만 보이고 있을 뿐, 그 밖의 무덤에는 거의가 부도

20) 경종 003 02/11/29(갑진)

21) 정조 012 05/10/21(경인)

處에 세운 것이 神道碑, 5品 以下者는 方趺坐首도 其高四尺이니 墓左에 세운 것을 墓  
碑이라한다<sup>220</sup>고 하여 神道碑와 墓碑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선 초기 숨유의 사상으로 입석이 조상에 대한 효도로 인식되어져 일비가 성행하였다.  
조선 초기 碑頭의 양식은 고려 후기의 主首形·圓首形을 따르고 있다. 규수형에는  
대개 조각이 없고 반월형은 여러 형상의 조각이 있다. 15세기 초부터 임진왜란 전후에  
는 方趺荷葉形과 方趺坐首形이 많고,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方趺螭首形이 사용되었다.

비석의 건립은 品階에 따라 비의 크기와 종류를 구별하였는데 立石規例를 보면 <後  
漢書>에 「方者謂之碑 圓者謂之碣」이라 하였으나 碑는 碑頭가 方角形이고, 碣은 半  
圓形이다. 즉 碑와 碣의 구별에 있어 碑는 碑身의 腰부분이 4角진 것이고, 碣은 石物  
의 腰 쪽을 圓形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唐六典>에는 「五品以下 位碑 七品以下立碣」  
이라 하였고, <明會典>에는 「五品以下 許用碑, 六品以下 許用碣, 入止用犧誌」라고 하였

220 우진각지봉은 城門이나 樓門에 많이 사용하여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남대문·종화문 등이 있다. 또  
한 궁전이나 정원 등에서 소규모의 향우건축에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황왕장이 있다.

230 金鼎年, 1906, 「儀禮彙要」, pp. 41-42.

다. 市南 余榮(1607~1664) <家禮源流>(1711)에 의하면 형태와 크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 왕 : 龜趺螭首, 이수 높이 97cm, 비신 높이 273cm, 너비 106cm, 귀부 높이 115cm.
- 1품 : 龜趺螭首, 이수 높이 91cm, 비신 높이 257cm, 너비 103cm, 귀부 높이 109cm.
- 2품 : 龜趺螭尾, 만봉 높이 85cm, 비신 높이 242cm, 너비 97cm, 귀부 높이 103cm.
- 3품 : 龜趺天跡, 천쪽 높이 79cm, 비신 높이 227cm, 너비 91cm, 귀부 높이 97cm.
- 4품 : 方趺圓首, 원수 높이 73cm, 비신 높이 212cm, 너비 85cm, 대석 높이 91cm.
- 5품 : 方趺圓首, 원수 높이 67cm, 비신 높이 197cm, 너비 79cm, 대석 높이 85cm.
- 6품 : 方趺圓首, 원수 높이 61cm, 비신 높이 182cm, 너비 73cm, 대석 높이 79cm.
- 7품 : 方趺圓首, 원수 높이 55cm, 비신 높이 167cm, 너비 67cm, 대석 높이 73cm.

연성군 이곤의 墓碑文 문체양식은 피장자의 本貫·諱·官職·성품·행적·가족관계·묘비건립일과 건립자가 명시되었고 銘은 없다. 묘비의 양식은 방부원수 운문형으로 비두의 원수는 59cm, 비신은 80cm, 너비는 66cm, 두께 19cm, 비고 139cm, 총고 165cm, 이다.

## 2. 문양

비두의 문양은 莲瓣·眼象紋·唐草紋·일월상도·쌍용문·기린문·해타문·모란문·연화문 등의 무늬가 있다. 盖石도 그 형상에 따라 용이나 이루기 모양이 있으면 融首·荷葉·華葉·日月·雲紋·日出·疊山 등의 문양과 팔작지붕의 가첨석이 대표적인 盖石이다. 지역에 따라 삼척의 비석에는 方趺圓首日出形이 많고, 금산에는 方趺圓首疊山形, 경기도 지역은 方趺圓首雲紋形이 많은데 연성군의 묘비도 方趺圓首雲紋形에 속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으로 보인다.

연성군의 비두는 매우 특이한 조각이다. 비두의 전면은 雲紋과 수평선의 과도문에 바다가 보이는 일출광경으로 해의 안에는 삼족오가 있다. 비두의 뒷면은 운문에 일출의 광경으로 보인다. 이 묘비에서 중요한 특징은 삼족오다. 삼족오가 있는 비두는 남양주에 3점이 있는데 삼족오의 가특과 의미에 관하여 철학적인 면과 양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족오의 문양은 고조선의 후예들이 살았던 지역에 주로 보이는데 산동반도에 기원 전 20세기에 살았던 少昊족의 설화에 남아 있다. 설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이다.

한국 전통문화의 구심원리에 대한 우실하의 연구에 따르면 한자문화권의 기종문화는 ①북방 수렵문화, ②남방 농경문화, ③수렵문화와 농경문화가 융합한 문화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종문화를 배경으로 태양신·鳥靈神 숭배의 사마니즘인 三災論, 易思想, 그리고 繼陽五行論이 발생하였다.

북방문화의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 남하하면서 세운 은나라에서는 B.C. 5000년경에 북상한 농경문화를 수용하여 발달한 농경문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방 수렵문화의 상징인 삼족모가 오랫동안 지속하였고, 갑골원 등 수렵문화에서 5000 여 년 전부터 지속하여 왔던, 사냥한 짐승 뼈를 이용한 점술인 骨卜이 성행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렵문화를 기종으로 형성된 은의 문화가 "농경문화와의 접촉이 이루어져도 수렵문화의 상징성이 중심이 되어 농경문화의 전통들을 수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三足鳥를 고대의 무리민족은 "神의使者"로 귀히 여겼다. "삼족오"는 태양에 살면서 태양의 불을 먹고 사는 태양의 전령으로 전설에 나타나는데, 태양은 바로 하늘 혹은 밤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楚辭補注>에 "陽成於三 故日中有三足者 陽精也"라는 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둥이족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天孫임을 자처하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삼족오”를 숭상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었다.

<桓檀古記>에 “세 밤 달린 까마귀가 들 안으로 날아 들어왔는데 그 날개 길이가 석자다.”<sup>24)</sup>라 하여 가장 먼저 삼족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기록에는 “해의 안에 삼족오가 있다.”<sup>25)</sup>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족오의 사상은 매우 오래된 이념이 내포된 문양으로 보인다. 기원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오는 태백산(백두산)의 麟達다. 속대의 구조로는 새의 머리가 셋인데 다리는 하나로 된 三頭一足形과 一頭三足形이 있다.

三足鳥 신앙에 대하여 중국의 楊作雲은 “해 가운데 까마귀가 있는데 태양이 운행하는 것은 까마귀가 짚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까마귀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새였다. 이는 새를 토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과 태양을 토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사상으로 동이족이 새와 해를 토텁으로 하였다.”<sup>26)</sup>하여 동이족이 새와 태양을 토텁으로 하고 있는데 연유한다고 하였다. 삼족에 대하여는 범조와는 달리 神鳥로서 삼족을 담아 구별하였고 그 발생시기는 西周封建國初로 보았으며 산동반도 일대에서 발생하였다 한다. 또 周易는 “태양의 측점”으로 보았고, 이병도선생은 “陰陽思想”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세발 까마귀는 원래 동이족이 숭상하던 신성한 새였으며, 고대인들은 세 발 달린 까마귀가 태양 속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상고시대 동이족은 중화족을 압도하여 동아시아의 명주로 역할을 하였으나 후에 한족과의 경쟁에 밀리게 되고 중국의 사상의 영향으로 ‘한족을 꼽박하던 동이의 상징’인 까마귀에 대한 한족의 시각이 우리 문화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나는 삼족모. 그리고 까마귀의 모습을 한 속대와 짐월 대보름의 까마귀체 등에서 신조로서의 까마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불교 유물에서도 살펴 수 있는데 繡章은 가사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그 크기는 가사의 1條 속에 들어갈 정도이다. 繡章은 대부분 가사의 윗부분에

24) 밀승국 번역 주체, 1987.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p.79. “八世權君于西輪..甲寅七年三足鳥飛入苑中其翼廣三尺。”

25) 異王先 <論衡·達日> “日中有三足鳥”

<山海經> 部注 “中有三足鳥”

<淮南子·精神訓> “日中有踶鳥” 高誘 注 “踶，猶蹲也，則三足鳥”

<楚辭·天賦> 王逸注 <淮南子> [今本物]云 “商命葬射十日，中其九日。日中丸焉皆死，墮其羽翼。‘則三足鳥當日之精，又戒傷或驚日事者’”

<舜葉記> 卷四云 “東北有之日之草，西南有春生之草，……三足鳥數下地食此草，羲和欲取，以手撩鳥目，不勝下也。食神絕不老。惟鳥數食此草，則壽限不獲動矣”

漢 司馬相如 <大人賦> “西乃今日據而西王母饋然白首，龍騎而穴處兮。亦行有三足鳥爲之後，‘則日中神乘三足鳥，其真主陰後之鳥。今所見漢畫像帶常有三足鳥，九尾狐作爲瑞鳥瑞獸列於西王母座傍者本此’”

26) 楊作雲, 1941. <中國學報> 第1卷

포리와 단장면 갑률리 등 경계지점 정상을 이루고 있는 해발 720m의 명산이다. 금모라는 것은 태양속의 삼족오 전설에서 유래된 말로 뱃님의 이칭이다. 즉 행곡리의 동쪽에 아침 해가 떠오른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산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신화에서는 까마귀를 "玄鳥"로 북방을 지키는 새로 인식한다. 바로 모룡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북방을 검정색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북방은 五行에서 水를 차지하고 있고, 이 水의 의미는 "탄생과 시작"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의 친령인 청스런 神物에 왜 밤이 새 개가 달린 걸까? 이는 우리 고유의 三思想에 유래한다고 보여 진다. 바로 삼신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의 숫자로 三을 중상한 것이다. 天地人이라는 만물의 완성체를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식하여, 삼신사상이 유래 되었다.

중국에서도 3이 두루 쓰인다. 주자가례가 강화되면서 귀착된 三日葬 · 三蓋 · 三色實

27) 고려의 친체옹(天祚榮)을 장총한 고승, 성존 王(王)씨, 이름은 후(煦), 호는 주세(祐世), 시호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출막출신. 아버지는 고려 제11대 왕·민 문종이며, 어머니는 민예봉후(仁睿王后) 이씨이다. 문종의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11세에 문종이 왕자들을 불러 "누가 출가하여 복전(福田)이 피웠는 나?"고 물었을 때 출가를 자원하였다. 1065년 5월 14일에 경덕국사(景德國師)를 은사로 삼아 출가하여, 영동사(靈洞寺)에서 금구하다가 그해 10월 불일사(佛日寺)에서 구속계(具足戒)를 맡았다.

果·三藩 따위는 중국 영향이다. 三皇·三道·三族·三歲도 전래품이다.

우리에겐 '3번'하면 고시례처럼 극히 원초적인 수 관념들도 있다. 신화시대 또는 신화의 전승체인 무속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3의 원초성이 보인다. 단군신화의 천부인 3개, 무리 3천명, 풍백·무사·운사, 삼월일간(21일)의 금기, 환인·환웅·단군의 '3대' (三代)로 이루어지는 '三神'체계는 고대 서사문학의 원류이다. 해모수·동명왕·유리왕으로 이어진 부여족의 '3대'도 마찬가지다. 구월산에 '三神'을 제사하는 '三聖祠'가 있고, 굽곳에 '三神山'이 펴져 있는 것도 신화시대의 산물이다. 민족의 탄생을 창식하면 '三神'은 그대로 민족 구성원의 개개인의 탄생으로 이어져서 아기 낳는 안방의 신이 되었다. '삼신합마니'가 그것이다. '삼줄'(裷條)을 끊고 나오면, 밤과 국 '세 그릇'을 바치며 '삼월 일'간의 금기를 행한다. 아기가 끝 때까지 '삼신'이 도와준다고 믿어 '삼신바가지'·'삼신주머니' 따위로 모신다. 3의 원초적 푸리를 더 파고 들어가면 제주도신화의 '삼명두'를 만날 수 있다. 삼명두는 제주도 무당의 조상신격이자 3대 祖具인 '묘령·신칼·신관'을 일컫는다. '세 쌈둥이'·'삼행제'가 양반 '삼천'을 죽인 뒤 천·지·인을 관장하는 신격이 되어 제주도 무당의 원조가 된다는 삼명두 이야기는 3의 원형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민중적 세계관을 관찰시키는 것으로도 사용했다. '삼재수'가 그것이다. 오늘날은 개인적 예박이 정도로만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큰 삼재'라 하여 불·불·바람의 재액을 일컬었고, '작은 삼재'로는 악병·굶주림·병난 따위를 놓았다. 자연 재해와 인위적 재해를 삼재로 본 것이다. '삼재'를 당한 사람은 '제 마리'의 배를 그려 문삼주에 불였다. 조선후기의 역동적인 三頭一足龐 부적들이 그것이다.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가볍주구로 사달리던 민중들에게 세 개의 머리는 힘의 상징, 그대로였다. 민중의 항거를 담은 황해도 장산곶의 장수매실화도 같은 의미다.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3을 쓰고 있다. 내기를 해도 '삼세번'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의사봉도 '3번'을 두드려야 가결이 선포된다. 3.1독립선언문에 '33인'이 등장하고, 결의대회도 '만세삼창'으로 끝낸다. 한글 창체원리도 하늘·땅·사람 셋을 중심으로 삼았고, 간장·고추장·편장의 '3장'은 민족음식문화의 기초를 이룬다. 같은 노리개를 만들어도 '이작'이나 '오작'이 아니라 '삼작' 노리개로 만든다. 이렇듯 우리 생활 굽곳에 3이 깃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의 집단적 푸의식에 3이란 숫자가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3은 저 흉자 쓰이는 것만은 아니다. 3이 3번 반복돼 9를 이루면서 강한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서발 서뇌서흡으로 팔을 준비하는 마을 굿에서는 3의 의미가 한결 강해진다. 아홉수라고 하여 29살에 결혼을 피한다는 관념 속에는 어미 '삼재'라고 하는 액이 3번 반복된 마지막 해라는 계산법이 숨겨져 있다. 삼행국각·삼정승 육판서처럼 3과 3의 배수인 6이 결합되어 강조되기도 한다. 3은 陽數이고 길한 숫자인 뜻으로 양수가 겸

천정에 복두칠성과 성수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신도가 출현하는 고분에서 발견되고 일중삼족오와 복희씨가, 월중섬여와 여와씨가 결합하는 양상이다.

고구려 벽화에는 풍속화, 초상화, 사신도 등과 함께 星辰圖가 많다. 청신도에는 해와 달, 별자리 등이 그려져 있고 해 속에는 까마귀가 그려져 있다. 이 까마귀가 삼족오이다. 해 속의 까마귀는 달 속의 金蛙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이 까마귀는 검은 색으로 되어 있고 다리가 셋이다. 이 세 발 달린 까마귀는 해의 상징은 煙의 뜻이고, 개구리로 상징되는 달은 賦의 뜻이다. 즉, 음양론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삼족오는 고구려 쌍영총, 각저총, 덕흥리 1호, 2호 고분, 鐵馬冢, 강서중묘, 천왕지신총, 장원 1호분, 무용총, 약수리 벽화고분, 그리고 다섯무덤(오희분) 4호묘, 5호묘등, 평남 진파리7호분출토 금동관식 등에 그려져 있다.

28) 미합구, 1994, 「고구려의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 「돌발학지」 제85집.

고구려는 天孫意蕭을 갖고 있었다. <콩개토태왕비>에도 '天孫'임을 자처하였고 三足鳥도 천손신암을 표현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삼족모는 다리가 셋에 머리가 하나인 까마귀다. 무덤의 수호신으로서 고구려인의 험찬 기상을 상징하는 三足鳥와 三頭一足鷹은 똑같이 3에 기초한 제의적 상징물이다. 고구려시대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에 걸쳐 3은 민족사에서 결코 제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상과 같이 삼족모는 해뜨는 동방의 나라 즉 조선을 대표하고 한민족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연성군묘비의 비두에 사용된 삼족모는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서체

연성군묘비는 연성군의 아들 大升의 遺意에 의하여 손자인 李倣이 친히 하였다고 비음에 기록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이숙의 글씨로 보인다. 비석 전면의 글씨는 고려 말 이후로 나타난 한국적인 서풍의 서체다. 필획 굵기의 변화가 적고 단아하며 아름답다. 결구에 있어서도 기형이 적고 정방형의 단정한 결구다. 특히 사자관들이 즐겨 쓰던 서체로 과거 試紙에도 많이 사용하던 서법이다. 비음은 해서로 김샘의 서법이 보이나 이는 李觀微<sup>29)</sup>과 관련하여 다음의 과제로 미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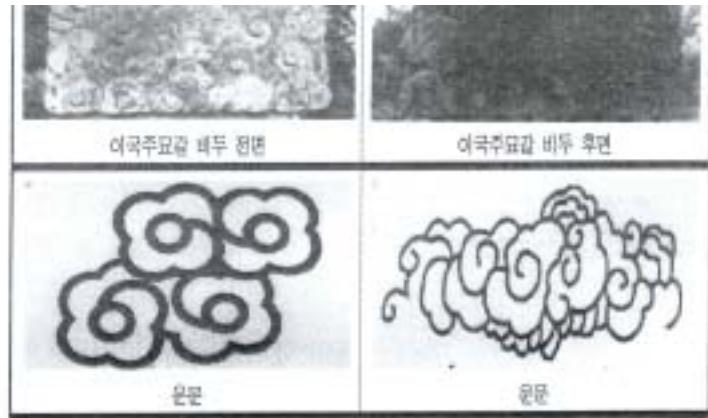
29) 李觀微은 1610(광해군 10)~1695(숙종 21) 조선의 문신. 자는 國賓, 호는 芬齋·芬谷, 시호는 정희(靖禧) 실(?)의 아들, 조부는 李昌庭, 증조부는 李澈이다. 1639년(인조 17) 司馬試에 합격, 成均館 懿生으로서 뛰어난 재질

도 하고 있겠지 면류한다. 三足鳥太陽은 '太陽三神'이다. 이 太陽三神은 祖因·桓雄·權君을 가리킨다. 그래서 고조선의 후예들의 삼신은 생명을 주고 가호하는 신이기 때문에 반듯이 아기를 낳으면 삼신에게 체사하는 의식과 관습이 있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은 <광개토태왕비>에서 천제의 후손임을 말하였다. 삼신신앙은 고구려의 지배적인 신앙이 되어왔다가 불교가 유입되어 국교로 되면서 민간신앙으로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삼족오 문양은 天孫意願을 갖고 있는 고구려의 원손신앙을 표현한 것이다. 고구려 인의 핵심 기상을 상징하는 三足鳥는 해드는 동방의 나라 즉 조선을 대표하고, 한민족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연성군 묘비의 비투에 사용된 삼족오는 '日中三足鳥'와 수령선 위의 운문은 일출을 상징하는 동방의 나라 '조선'을 말하여 준다. 이런 차원에서 延城

을 보여 전거로 찰봉이 되고, 1653년(효종 40) 刷試文科에丙科로 급제, 어린 벼슬을 거쳐 擧敎에 승진했다. 1660년 세1차 亂後歸藩 때 宋時憲 등 西人의 普承謙에 대처 한 2년살을 주장하다가 물거난 南人 許權 등을 구제하러다가 全羅道畧事로 좌천되었다. 1664년(현종 5) 다시 事主이 되고, 1674년 속종이 즉위하여 남인에 득세하자 미들해 대사성 대사헌을 역임, 한편 經筵官이 되어 속종의 신임을 받았다. 1680년 촉포使로 향나라에 다녀왔고, 1689년 혜조 판서·보망관(輔翼官)이어 이조 판서를 거쳐 行刑中樞府事로歿仕하고 車朝賓가 되었다. 1694년(숙종20) 甲戌畧事가 일어나자 견디못해 때의 首領으로 函馳되었다. 檀君에 일가를 이루었고 만년에는 金生의 著作를 연구했다.

君 李坤(1462~1524)의 묘비는 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민식 (극 풍태학 강사 / 한글사)



李坤(1462~1524)을 비롯한 李大升, 李公升, 李倅, 李塡, 李凱, 李晟 등의 묘역에 묘표와 묘갈이 약 10여기 조성되어 있다. 본 유물들은 한 문중에서 약 이백오십년에 걸쳐 각 시기별로 제작되어, 일찍부터 전통시대 사대부가의 묘비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주목 받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위 유물들의 학술적 고찰에 앞서 조선시대의 묘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돋기 위하여 먼저, 조선시대에 묘비 건법이 유행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 종류를 크게 묘표·묘갈·신도비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 후 연성군 문중의 세장지에 현존하는 금석문을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각각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통해 금석문으로서의 가치를 논해 보도록 하겠다.

## II. 조선시대 묘비 건립의 사상적 배경과 묘비의 종류

### 1. 사상적 배경

불교가 자배 이념이었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寺刹에 건립되던 高僧大德들의 塔碑나 行蹟碑가 그시대 비석의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崇儒抑佛 정책을 펼치던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碑이나 일반 墓所 앞에 세우던 陵墓碑가 크게 유행을 하였다<sup>31)</sup>.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인 士大夫는 儒教의 倫理의 價値觀에 입각해서 조상에 대한 墓碑의 마음으로 일정한 格式에 맞춰 묘비를 건립하는데, 이러한 묘비 입석의 행위가 조상의 禮를 밝하고 講揚하는 것이며 올바른 禮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儒學의 창시자인 孔子가 越陵季子의 묘비에 '嗚呼越陵季子之墓'라 题한 故事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 實例를 韓宗代의 명문장가인 龍洲 趙桐(1586~1669)이 撰한 「戶曹判書李自堅墓誌銘序」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경은 묘간을 세우지 말라는 이자견의 유언 때문에 묘간의 입석을 주저하고 있던 후손에게 공자의 고사와 『禮記』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간의 입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대가 침으로 곱자께서 越陵季子의 묘에 쓴 바를 본받아 다른 말이 없이 한다면 선조의 덕도 드러내고 선조의 훈계도 따르는 것이 되어 一舉兩全이 되는데 도리만 따라 준다면 아물려 (묘간의 입석을)행해도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sup>32)</sup>

조선시대는 이같이 조상의 功과 禮를 밝히는 것을, 후손이 담연히 해야 할 孝이며 禮라는 생각에서 立碑를 시작하였는데, 후대로 갈수록 점차 그 본뜻은 빠져하고 自家의 威勢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도에 지나치게 입비를 하게 되었다. 입비의 주체가 입비를 많이 할수록 他人們로부터 조상에 대한 효가 치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 아울러 自家의 위세를 他家에 显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門中에서는 宮職을 지내기

31) 李濟官, 1981, 「石碑의 발생과 横式變遷」, 韓國의 美術『石碑·浮屠·碑』, 중앙일보사,

중고, 1997, 「朝鮮時代 墓碑에關한 研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20쪽.

\_\_\_\_\_, 2001, 「조선시대 墓碑의 종류에 대한 一考察」, 「墓誌考古」, 장간호, 기전문화재연구원.

32) 龍洲 撰, 「戶曹判書李自堅墓誌銘序」, 1669(현종 1).

“季子 越主夫子之墓 越陵季子墓 無耕翻 利害經之德 濡祖之訓 一舉而兩全 濡因存故行 而不偏者矣”

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의 上昇을 좌하고 死後에 묘소를 쓰면서 큰 비석을 세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표석에 하위 사실을 기재한 자와 李宗 때 庶人와 표석이 2尺 (60Cm)을 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어긴 자는 처벌하고, 자손에 없는 경우에는 표석을 훼손하도록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효종 때 庶人의 표석 크기에 대한 규정을 왕명으로 하달할 정도로 이미 庶人의 묘표 입석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庶人們의 墓表 건립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늘어만 가는 것이 조선 말기까지의 일반적인 추세였다.

③ 조선시대의 비석은 砂石의 위치와 빗물(碑身)에 새겨진 비문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陵碑 : 왕실의 각종 墓에 세우던 비석이며 그 종류에는 塔表와 陵碑道碑가 등이 있다.

② 墓碑 : 墓에 건립되던 비석이며 그 종류에는 墓表, 墓碣, 墓碑道碑 등이 있다.

③ 寺碑 : 寺廟에 접식하던 비석으로 高僧들의 塔碑와 사찰의 沈革을 기록한 墓碑 등이 있다.

④ 一般墓碑 : 遗址碑, 墓基碑와 각 墓碑의 墓碑道碑 등이 있다.

⑤ 其他碑 : 善收碑, 頌德碑와 주요 건축물의 정문 앞에 세우던 下馬碑 등이 있다.

- 주 1)의 증고, 참조.

34) 金榮 著, 「家譜源流」 卷 11,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 ② 墓誌

조선시대 이전의 碑로는 고려 顯宗 17年(1026)에 세워진 奉先弘慶寺碑이 유일한데 귀부와 이수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龍頭化된 龜頭의 방향이 특이하게 우측으로 돌아가 있다<sup>36)</sup>. 이 시대에 세워진 다른 비석들과 양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무슨 연유로 碑이라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세워진 수 많은 墓誌의 선구적인 예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橋山 李裕元(1814~1888)의 저서 『林下筆記』<sup>36)</sup>의 자료에 의하면, 묘감은 외형상 首石이 둥글고, 원래 5점 이하의 관원만 사용하였으나 후대에 이르러 碑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碑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碑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 오직 묘에만 碑을 세웠다는 점이다. 묘감은 중간계급의 관직을 지낸 관리들이 세우는 비석이었던 만큼, 묘표보다는 규모가 크고 신도비보다는 작은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래서 왕실의 능에는 碑을 전혀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묘감은 관직에 전혀 出仕하지 않았던 道士 崔灝의 墓誌(1611)<sup>37)</sup>이 세워진 것으로 보아, 양반사대부의 신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조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③ 神道碑

墓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일정한 품階에 이르러야만 건립할 수 있었던 신도비는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중국에서는 처음 품과 宋의 시기에 처음으로 신도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sup>38)</sup> 이를 확증할 만한 투명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신도비와 관련, 문헌상으로 최초의記事가 보이는 것은 『高麗史』이다. 그 列傳 全方慶(1212~1300) 편을 보면 忠宣王이 왕명으로 신도비를 입석하라는 내용이 있고<sup>39)</sup> 『東文選』에 그 신도비문이 실려 있어 실제로 입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존하지 않아 정확한 실정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아무튼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신도비임에 틀림이 없고, 신도비의 입석이 최소한 충선왕대부터는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신도비는 왕실이나 사대부가 모두 건립하였다. 그러나 文宗 이후 왕실에서 건립이 중지된 반면<sup>40)</sup>, 사대부는 西原伯 李挺(1297~1361)의 神道碑(1403)를 필두

35) 1981, 韓國의 美 9 「石燈・浮屠・碑」, 중앙일보사, 참조.

36) 『林下筆記』卷2, 僧田花市編, 墓誌文.

37) 양주군·양주문화원, 1990, 「비문으로 본 양주의 역사」 II, 399~405쪽.

최근 묘감의 碑題는 '有明朝射鵰成均道士崔公墓誌并序'이다.

38) 『高麗史』列傳, 卷17, 全方慶條.

39) 忠宣 慶宣忠協謀定難國功臣暨上三韓三重大臣 雄忠烈 命立神道碑"

40) 조선시대의 신도비는 定陵, 儀元陵, 育陵, 雜陵, 英陵에만 건립되었고 文宗이후에는 입석이 폐지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 1. 李仁文 墓表

李仁文(1425~1503)은 蔚山君代의 문신으로 睽吏曹參議  
李根健의 長男이다. 1453년(단종1) 司馬試에 합격하고 이어  
1465년(세조11) 문과급제후 벼슬길에 나아가 兵曹參議를 거  
쳐 衛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79세까지 장수하였으며 사후에  
純忠補祚功臣禮曹參判延安君에 追贈되었다.

57번 지방도로를 타고 문중동 방향으로 약 200여 미터를  
진행하다 보면, 무족의 구릉에 자리잡은 이인문의 묘소가 나



되었다. 이는 種王의 사적이 모두 國史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대부처를 비롯해 세를 칭모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林下筆記」 卷14, 文獻指掌編, 陸寶神遺譖).

타난다. 묘역의 봉분 앞에 方趺荷葉 양식의 묘표(총높이 130cm)가 세워져 있다. 겹게 산화된 대리석의 비신(높이 87cm)前面에는 “贈純忠補祚功臣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春秋館事延安君行折衝將軍敎知中樞府事李公 貞夫人全義李氏兩位之墓”라 되어 있어 부부 합장 묘임을 알 수 있다. 뒷면에 간략하게 새겨진 글씨는 “公諱仁文……”만 확인될뿐 나마지는 판독이 어려운 실점이다. 건립연대가 없어 정확한 조성시기를 알 수 없지만, 이인문이 돌아간 1503년(연산군9)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 2. 李坤 墓表



이곤의 묘역은 판교동 낙성초등학교 후문 소로변 무릉에 위치한 연안마씨 세자지의 편상단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 봉분의 좌측에 方趺雲首 양식의 묘표(총높이 176cm)가 세워져 있다. 백대리석 비신(높이 90cm)의 앞면에는 “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義禁府事廷城君行奮義靖國功臣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李公之墓 貞夫人文化柳氏之墓”라 쓰여져 있어兩位合로임을 알 수 있다. 뒷면의 隨記 서두에는 表題 가 “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義禁府事廷城君行奮義靖國功臣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李公□□□□”이라고 쓰여져 있다<sup>41)</sup>. 끝부분의 네 글자는 “墓表陰記”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墓碑일 경우, 음당 있어야 할 銘이 없기 때문이다. 撰書者는 기록하지 않았고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건립연대는 “嘉靖三十八年(1559, 명종14)八月”이며 손자 李大升(李大升)의 遺意를 받들어 刻立하였다<sup>42)</sup>.

비신과 한 품으로 이루어진 雲首(높이 48cm)의 앞면에는 구름속에 떠 있는 둥근 태양 안에 날개를 놓고 비상하는 三足鳥의 모습을 장식하였고, 뒷면에는 구름무늬를 역동적으로 조각하였다. 삼족모는 고대부터 태양을 상징하면 새로 이같은 장식법은 남양주시의 朴雲 墓表(1539, 종종34)<sup>43)</sup>와 邊安烈 墓表(1571, 선조4)<sup>44)</sup>의 문수에서도 찾을 수 있다.

41) 高麗金石錄, 2000, 「韓國金石文大觀」, 총-민관이서원, 103~109쪽.

42) 高麗金石錄, 2000, 앞의 책, 103~110쪽.

43) 토지박물관, 1999,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86~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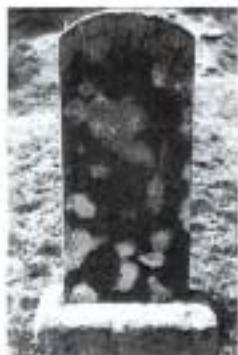
44) 토지박물관, 1999, 앞의 모고서, 275~276쪽.

글씨가 많이 전하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영의정 尹殷輔와 坡林君 李鳴의 신도비가 있다.

#### 4. 李公升 墓表

李公升(1501~1533)은 中宗代의 문신으로 자는 秀夫이며 연성군 李坤의 次男이다. 掌隸院司許을 지냈으나 일찍 요절하였으며 사후에 承政院左承旨를 追贈받았다.

묘소는 이대승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의 봉분 앞에는 方趺圓首양식의 墓碣(총높이 174cm)이 立石되어 있다. 대리석이 겹개 산화된 비신(높이 142cm)의 앞면은 손상이 심하여, 시멘트로 여기저기 보수해 놓은 상태이다. 비신의 뒷면에는 碑題



45) 高麗全石院, 2000, 말의 책, 157~162쪽, “十三後高麗聖錄書”

가 “通善郎行掌隸院司評李公墓誌銘并序”라 되어 있는 묘간문을 새기었다. 묘간문은 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知經筵 鄭惟吉(1515~1588)이 撰하고 典設司別坐通善郎 中璣이 楷·行體로 유려하게 써하였다. 마모가 되었지만 판복이 가능한 상태이고 견립연대는 “萬曆四年丙子(1576, 선조丙子二月 日 刊立)”이다<sup>46)</sup>.

정유길은 호가 林塘으로 좌의장을 지냈으며, 인품이 종후하고 도량이 넓었다. 서예에도 일가를 이루어 林塘體라는 평을 얻었으며, 시문에도 뛰어나 많은 글을 남겼다. 비문은 본 묘간외에도 信川郡守 金生壽와 通禮院引儀 李宗泰의 묘간문을 지었다<sup>47)</sup>.

### 5. 李倅 墓誌



李倅(1518~1576)은 宣祖代의 문신으로 자는 起仲이다. 轉寧郡  
守 李大升(1497~1557)의 次男으로 贈吏曹參判 李純臣의 아버  
지이고, 부인 陽川許氏는 翼平公 許礪의 손녀이자 濟陽君 許淳의  
따님이다. 1549년(명종4) 進士로 典設司別提라는 관직을 처음  
지낸 후 司憲府監察과 平昌郡守를 거쳐 漢城府判官에 이르렀다.  
묘역은 낙성초등학교 후문의 57번 지방도로 무쪽에 南向으로 자  
리잡고 있다. 묘역의 우측에 宣祖代에 크게 유행하던 方趺圓首  
양식의 墓誌(총높이 152cm)이 세워져 있다. 이끼가 많이 낀 백대  
리석의 비신(높이 139cm) 앞면에는 “通訓大夫行漢城府判官李公  
之墓 旗人陽川許氏之墓”라 써 놓아 墓主를 밝히고 있으나 비신 뒷면에 새겨진 묘간문  
은 마모가 극심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신 뒷면의 좌측 끝단에서 “成均進士 韓漸 □”와 “嘉善大夫行敎知中樞府事  
洪…”이란 기사를 겨우 확인할 수 있어 摄書者를 추정할 수 있다. 선조대에 韓氏 姓을  
가진 성균진사로서 묘간문을 쓴 경우는 당대의 명필 石峰 韩漸(1543~1605) 밖에 없이  
본 묘간문은 한호가 쓴 것으로 추측된다. 宦術을 중시하던 조선시대의 풍토에서 성균진  
사의 신분으로, 이숙 묘간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30대에 이미 명필로 크게 이름을 뚫  
치면 한호였기에 가능했으리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호가 성균진사일 때 쓴 碑誌로는  
경상도관찰사 許暉의 神道碑(1582, 선조15)가 대표적인 작품인데, 거기에 쓰여진 품제  
가 이숙 묘간 앞면의 鋒硬明正한 서체와 거의 동일하다<sup>48)</sup>.

46) 朝鮮全石碑, 2000, 일의 책, 169~173쪽.

47) 鄭惟吉, 「林塘遺稿」.

48) 최민수, 1987, 「韓漸書藝史稿」, 『異松文華』33,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이한주, 1998, 「石峰 韩漸 書藝 研究」, 한국창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7. 李侃 墓表



李侃(1523~1584)은 宣祖代의 문신으로 자는 和仲이며 掌隸院司評 이공승의 아들이다. 관직은 高城郡守를 역임하였으며 사후에 吏曹參判을 追贈받았다.

묘소는 판교동 남쪽에 자리잡은 안산(141m)의 낮으마한 구릉의 중턱에 위치한다. 묘역의 봉분 앞에 方趺蓋石 양식의 묘표(총높이 221cm)가 세워져 있다. 묘표의 방부와 개석은 물론이거니와 비신(높이 143cm)도 회황색 대리석을 사용하였다. 방부의 윗면을 覆蓮으로 둘리고 四面은 連珠와 眼象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나, 두 쪽으로 절단되어 시멘트로 보수한 상태이다. 또한 팔작지붕의 개석은 기왓골과 수마새, 암마새가 사실적으

48 조선시대의 신도비, 묘갈, 묘표에 관해서는 주1)의 참고 참조.

로 침교하게 표현되었다.

비신의 앞면에는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道副大夫高城郡守李公之墓  
貞夫人光州金氏之墓”라 쓰여져 있고, 뒷면의 음기는 “皇明萬曆三十三年乙巳(1605, 선  
조38)冬”에 아들인 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 李弘老(1560~1612)가 謹識하였으며 書者는  
기록하지 않았다<sup>50)</sup>.

#### 8. 李晟 墓表

李晟(156~1626)은 仁祖代의 문신으로 자는 明甫이고 증이  
조참판 李純臣의 長男이다. 益仕로 관직에 나아가 七員을 잘  
다스려 治績을 쌓았으며, 季适의 墓(1624) 때는 王을 公州까지  
扈從하여 그 곳으로 廣州府尹를 제수받았다.

묘소는 하산운동 아랫의 뿐니 마을의 뒤쪽 구릉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의 봉분 좌측에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총높이 161  
cm)가 건립되어 있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28cm)이 한 겹  
벗겨지면서 겹게 산화되었으나 비문의 판독은 가능하고, 비  
신의 전면에 “嘉善大夫行廣州府尹李公之墓 貞夫人谷城金氏附  
左”라 쓰여져 있어 兩位 合空암을 알 수 있다. 후면에 4행의  
음기를 새겼으나 撰書者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건립연대는  
“乙未四月日立”이다. 연호가 표기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전후 사정으로  
보아 1655년(효종6)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9. 丹陽李氏 墓表

丹陽李氏는 執義 李柔의 딸이자 태종대에 좌의정을 역임한 丹山府院君 李茂(1355~  
1409)의 손녀이다. 曾吏曹參議 李根健과 혼인하여 延安君 李仁文(1425~1503)을 비롯  
한 3남1녀를 낳았는데, 관교에 산재해 있는 연안이씨의 모든 묘는 바로 연안군 이인문  
의 후손들이다.

묘소는 이숙 묘역의 우측 산능선에 위치하며, 묘역의 봉분 좌측에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가 세워져 있다. 대리석의 비신 앞면에 “贈淑夫人丹陽李氏之墓”라 쓰여져 있고, 뒷면에는  
“一子仁文文科參議 二子仁行縣監 三子仁忠文科承旨 女金嗣源尚衣正”이라는 子孫錄을

50) 朝鮮金石錄, 2000, 모비 책, 197~202쪽.

어 있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01cm) 일면에는 "贈左承旨李  
公之墓 媵夫人濟州韓氏之墓"라고 東國眞體風의 韓雅한 書體로  
墓主를 밝히고 있다. 뒷면의 읍기는 5代孫 李栻(1659~1729)이 蘭徵하였으나 마도가  
심하여 書者는 파악기 어려우며, 건립연대는 "崇禎戊辰後七十七年甲辰(1724, 경종4)五  
月 日"이다.

## IV. 맷 음 말

이상과 같이 연성군 문중의 금석문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이끈 묘표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露首의 장식이 매우 특특하다. 앞면에는 三足鳥의 모습을 장식하였고, 뒷면에는 구름부늬를 역동적으로 조각하였다. 이같은 예는 현 재까지 朴雲과 邊安烈 墓表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속 묘표는 비록 추정의 상태이지만, 조선증기의 대명필 石峯 韓謙가 쓴 것 이 유력하여, 각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석봉의 비길 글씨도 소수에 불과하여 그의 글씨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뒷면의 묘감문은 마모 극심하지만 앞면의 단정한 해서는 아직도 선명하여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이간 묘표는 문양이 사실적이며 조각 수법이 뛰어나다. 方趺에는 覆蓮을 포함해 連珠과 眼象을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팔작지붕의 盖石은 기와돌과 수박새, 암박새가 사실적으로 침교하게 표현하여, 당대의 우수한 묘표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한편 연성군 문중의 묘비 조설에 담대의 유명 문장가나 서예가가 참여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문장가로는 鄭惟吉(이공승묘감)이 있으며, 서예가로는 申孝仲(이대승 묘표), 中曉(이공승묘감), 韓謙(이속묘감)가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번성하였던 연 성군 문중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인문묘표(1503)부터 이택묘표(1724)까지 약 250년에 걸쳐 조성된, 총 10여기의 묘비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시기별 묘비 양식과 그 특징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이번 연구의 중요 성과라 할 수 있겠다.

6	李堯 墓表	18세기 추정	마모극심하여 鮑記의 유무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실정.
7	李侃 墓表	1605년(선조38)	子 忠清道觀察使 弘老 謹識이나, 書者는 기록하지 않음.
8	李昆 墓表	1665년(효종8) 추정	鮑記가 있으나, 捧書者는 기록하지 않음. 상태 양호
9	丹陽李氏 墓表 (李根健 墓人)	1706년(숙종33)	鮑記가 있으나, 捧書者는 기록하지 않음. 상태 양호
10	李倬 墓表	1724년(경종4)	5대손 祐 謹識이나 書者는 미상. 마모 심할.

# 附 錄



先塋墓地索引表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走	恭	川	進	副	忠	宣	追	恭	坐	水	司	新	延	慶	廷	叔	春	
福	故	列	宣	士	義	州	教	之	刑	役	昌	詳	厚	城	州	安	天	
晉	公	公	公	八	單	公	郊	公	公	公	公	公	君	公	君	人	丹	
等	靖	靖	靖	靖	靖	靖	靖	靖	靖	靖	靖	靖	靖	靖	靖	人	陽	
坤																	李	
統	做	且	提	憲	汝	陽	承	周	作	公	大	坤	坎	坎	人	久	文	
至	列	臣	臣	李	金	章	更	光	升	才	升	升	升	升	升	又	基	道
廟	墓	基	墓	成	山	基	墓	墓	墓	墓	墓	墓	墓	墓	墓	墓	墓	墓

也豈不以無譜而人不知  
之譜使同姓之人得以知  
氏出自延安盛於高麗之  
辛戶籍數紙得之舊箱中  
兄弟及支派既無以稽而  
哉以輿地勝覽所載者言  
乃我之先祖也其曰諱  
淑琦淑城乃今延陵府院  
自出之祖故其系之同源  
蘇定方伐百濟有功食采

延安延之有李始于此云云而延陵之先人墓碣仍載此語但史無明證恐難據以爲信姑爲之傳疑可也我家自尚書公以來名卿賢相迭出前後雖中更家禍而僉知公復顯至我曾大父兄弟三人俱捷大科子孫之擢第而登宰列者迄于今不絕此豈非先世之積德者厚而流慶者遠也康胡公之六代孫門長嘗有志於譜牒裒集頗勤承旨公之五代孫參奉公亦爲之撰譜與先考一嘗證定而皆未及脫稿壬辰之亂門長之所裒集者化爲灰燼而參奉公之所撰獨全於完山宗叔之家此亦幸也

光庭 犯

謂吾家譜牒前既發其端而尚未就緒此實吾等之責盍圖所以繼述先人之志乎然入我朝以後二百餘年流派之遠異姓之孫不知幾百千今欲俱收而畢錄則事繁而功未易訖此則徐

爲之許可也莫若姑錄真世系及同姓之親而遠錄爲愈也於

是就舊譜略加刪定其於先世或書其忌日及墓在某處與夫

妣夫人之系者得之故牒而詳之也安雖適人而必錄之若從其

姓也戶籍草并付于卷首者示諸後也換訖送于湖西方伯弘老

氏弘老氏乃還之光庭曰願兄校正而序之我當錄梓而廣其傳

焉光庭質之基高氏頗有改定者矣嗚呼是譜之作倡之於前而

迺成於今日雖未遑於異姓之親而其所以尊祖敦宗之本意實

有以繼先志而述先業則可不恕其略而取其意哉夫以一披閱

之間而先代之系支派之別歷歷於心目分而言之則自一人

之身而至於無服合而言之則自無服之遠而本於一人之身同

是譜者雖有親疎遠近之分而自先世觀之固無彼此之別苟

使同譜之人因是譜而思其本之一則敦睦之行不待勸而自行矣此吾譜之所以作也同譜之人其亦念之哉

皇明萬曆紀元之三十有三年乙巳秋七月日忠勤貞亮効節協榮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原府院君李光庭序

舊譜跋

世家大族必有譜者所以紀其世系而示尊祖敦宗之意於來世也我延安李寔三韓望閭首尾千有餘年名卿賢相代不乏人族譜之作宜有其舊而今無得焉意者我先祖春川公籍沒之變因散落而昧昧也頃年門長嘉山公與參兄嘗撰定譜牒繫未及脫述有云凸之歎重以壬辰之亂又灰燼而無所尋矣茲者延原李兄光庭氏暨正基憮慨然以繼述先志爲己任搜得草藁

於兵燹之後讎校舛訛以見聞作爲一譜屬余刊行急人之若  
子若孫若兄弟叔侄近而功總遠而無服雖有親疎等級之別而  
要其歸則如水之同源而派分木之共幹而流達正所謂一本而  
萬殊也然則載名同譜者其敢曰我與彼代相遠也分相疎也而  
不思其所自出者乎古人曰觀我譜則孝悌之心油然而生斯譜  
之作蓋開發先世未發之遺意而導後生敦睦之義於無窮延  
原公輩真孝悌人也歟真孝悌人也歟

皇明萬曆三十三年乙巳秋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  
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李弘老書于公山之緩帶軒

甲戌譜跋

吾季氏顯於世者三派而舊無譜其原系流派莫得以詳若干所

記識者亦多有闕遺不可以攷吾先祖府院公爲是之懼與宗人李清風基高甫繼先志述先事掇拾於亂餘灰燼之中使忠定公手寫一通屬之忠清觀察李公弘老刊行于世語在府院公李觀察序文中厥後九十年無繼是譜而作者流派遠而子姓繁興親疎遠近殆無所考稽矣清風公之孫故應敎后沆文慨然於斯勤加聚集屬草藁而逝至癸酉秋萬元適以關西觀察使將西下吾宗長老咸集于芹谷尙書公第謀所以卒業綴梓之道或者以爲三派之李同出於延安而俱系於中郎傳說于今則必是一人之後無疑不可不同譜或者以爲自吾先以史無明證既置之傳疑則不可必謂之同祖而與之同譜卒從後說只錄吾派別作一牒而吾再從祖牧使奎徵公主其事取應敎丈所裒集者校讎添

錄翌年春譜始成而送于萬元萬元使弟萬成萬根書以入梓  
斯豈非吾宗之幸也耶萬元卽主前說者也並其說錄之卷後  
以俟知者擇焉

甲戌肅暮春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督餉使平壤府尹延陵君李萬元謹識

癸酉譜跋

甲戌譜有跋無序今亦微此無

此我延安李氏新譜也舊譜之成一在 宣祖乙巳一在 肅

廟甲戌迄于今爲百有餘年子姓繁而派系難徵宗文競德氏  
病之倡新譜之議諸宗莫敢有異辭於是競德氏以單鳩財祖  
延氏相其役四載告成捲帙視舊譜三倍之役將訖宗中長老  
屬重蓮記其尾重蓮何敢斧余於斯譜之成竊有所感者蓋舊

譜之創修者延原公而蓮峰公校讎之繼修者延陵公而懶教  
公衷集之今又祖延氏兢德氏終始斯役重蓮亦多有叅閱者  
事若不偶遂嘗之如此

癸酉夏道訓大夫行弘文館副校理知製 教兼 經筵  
侍讀官春秋館記注官兩學教授別兼春秋重蓮謹識

舊譜凡例

舊譜序跋及康熙公戶口一通因置于卷首使後人考覽易  
舊譜所記公生平而書之其有闕誤處參考他譜略加添補證正而  
旁註以識之

舊譜只是一卷而今則增補既多故釐為三卷橫行分作五層者因  
舊也各代名下略具字號生年科名職品行蹟享壽卒葬封贈  
而稍詳於遠代以備遺忘夫人四祖亦隨聞彙錄而近代配室則  
只書姓貫父諱其未及聞者姑闕之

凡同姓無論宗支嫡庶隨聞單錄異姓則只及外孫者所以詳於同  
宗而略於異姓也

凡夫人有封職者從其封職而書之無則曰配非尊行者曰室庶派

則以妻某姓某之女書之

凡於前室後室各書有幾子幾女以明前後室出

凡女婿亦書官爵郡望及父名所以表明姻族令後人有所考觀也  
凡外孫必書某姓者所以別其異姓而不混於同宗也

凡有改名者書某改某出繼者書出繼無後者書無後以識之

凡子孫所居郡邑隨聞知輒書之

凡同姓之徵居遠外微而不著急於八梓未暇廣問以此遲回則亦  
恐耽藁之無期故姑置以俟後日

自我先祖君事以降至康胡公兄弟始爲分派故其子孫提頭再書  
處書自此至某爲某派使覽者易別

母卷遂葉書填千字字號而一譯再書處皆書見某字以便考覽焉

重刊凡例

一舊譜序跋康熙戶口一通因舊置于卷首

一乙巳譜三冊甲戌譜三冊皆橫畫五階而今則後承蕃衍派流甚廣且旁註比舊稍詳故加畫七階衍成十編

一傍註依舊譜備書字號

別號則只錄世所共知者

科第

進士或各書其年某科

官爵

母書末附

兼帶例謹

不書或有名宦則略書之遇政

以上則書官止下則只書官

生卒

備舊年

享壽

七十以上

始舊年

贈謚

太常

兼帶例謹

不書或有名宦則略書之遇政

以上則書官止下則只書官

墓地

書某邑

碑誌

撰述人姓

名亦書之

而配位書曰配某郡某氏

並

舊法訓語

一女婿依舊譜備書傍註而外孫男女則分註細書以示隆殺之

一舊譜兄弟姊妹序齒書之而男女異長禮也故今則先男而後

女其次序不可不卜故名下各書序一序二

一女婿依舊譜備書傍註而外孫男女則分註細書以示隆殺之

別雖有顯祖亦不書所以詳於同宗而略於異姓也

一有女而無男則曰无男無子女則曰无后雖有女婿及庶子不書於長男之位

一无后人當第末層則懸錄傍註不必再起

一在世人官爵書前某官今某官下世則書某司某邑所以詳於古而略於今也

一宗派生年必書 中朝年號 崇禎以後書 本朝廟號支派兄弟則自可推知故不復書

一舊譜之所闕者或考諸他譜明白無疑則補書之如版圖尚書公女婿洪侑康胡公前配洪氏之類是也

一繼後人書以系子敘子孫於其下者重宗統也出系名下書生

康胡公戶口

建文四年壬午六月日戶口西部上午正五里

嘉靖大夫承樞府左軍摠制兼判典醫監事李貴齡年五十七  
本延安父奉翊大夫典工判書上護軍元發古名寵卒祖追  
封匡靖大夫門下評理上護軍行典寶都監判官靖恭卒曾  
祖中正大夫左右衛大護軍顏改名永顏母康德郡以改松  
壩郡夫入金氏本成州外祖追封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  
行左右衛保勝中郎將金南寶故妻昌寧縣夫人成氏年五十  
二本昌寧郡父榮祿大夫摠部尚書藝文館學士成俊從改名  
淮得卒祖追封匡靖大夫門下評理上護軍行左右衛精勇中  
郎將阜曾祖奉善大夫典客副令公弼母同福郡夫人吳氏故

延安李氏世譜 舊序 原文

1

族譜之作自古有之蘇氏之譜蓋其一也豈不以無譜則人不知所自來其弊必至於視之若塗人故爲之譜使同姓之人得以知其本之一而敦其相睦之義也惟我李氏出自延安盛於高麗之世宜若有譜而頽乃寥寥乎無聞焉猶幸戶籍數紙得之舊箱中有以考先世四五代然而先世之昆弟及支派既無以稽而始祖之起於何代終莫之知也可勝歎哉以輿地勝覽所載者言之延安之李有三其曰諱貴齡諱貴山乃我之先祖也其曰諱石亨乃今判書廷龜之先祖也其曰諱淑琦淑誠乃今延陵府院君好問之先祖也是三姓皆不知其所自出之祖故其系之同源與否亦無以辨也世傳以爲唐李茂從蘇定方伐百濟有功食采延安是之有李始于此云云而延陵之先人墓碣仍載此語但史無明證恐難據以爲信姑爲之傳疑可也我家自尚書公以來名卿賢相迭出前後雖中更家禍而僉知公復顯至我曾大父兄弟三人俱捷大科子孫之擢第而登宰列者迄于今不絕此豈非先世之積德者厚而流慶者遠也康胡公之六代孫門長嘗有志於譜牒裒集頗勤承旨公之五代孫叅奉公亦爲之撰譜與先考一嘗證定而皆未及脫稿壬辰之亂門長之所裒集者化爲灰燼而叅奉公之所撰獨全於完山宗叔之家此亦幸也光庭竊謂吾家譜牒前既發其端而尚未就緒此實吾等之責盍圖所以繼述先人之志乎然入我朝以後二百餘年流派之遠異姓之孫不知幾百千今欲俱收而畢錄則事繁而功未易訖此則徐爲之計可也莫若姑錄其世系及同姓之親而速錄之爲愈也於是就舊譜略加刪定其於先世或書其忌日及墓在某處與夫妣夫人之系者得之故牒而詳之也女雖適人而必錄之者從其姓也戶籍

草並付于卷首者示諸後也撰訖送于湖西方伯弘老氏弘老氏乃還之光庭曰願兄校正而序之我當錄梓而廣其傳焉光庭質之甚禹氏頗有改正者矣嗚呼是譜之作倡之於前而遂成於今日雖未遑於異姓之親而其所以尊祖敦宗之本意實有以繼先志而述先業則可不憚其略而取其意哉夫以一披閱之間而先代之系支派之別歷歷於心目分而言之則自一人之身而至於無服合而言之則自無服之遠而本於一人之身同是譜者雖有親疎遠近之分而自先世觀之固無彼此之別苟使同譜之人因是譜而思其本之一則敦睦之行不待勸而自行矣此吾譜之所以作也同譜之人其亦念之哉

乙巳 宣廟秋七月日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原府院君李光庭序

延安李氏世譜 舊序 譯文

族譜을 만족하는 예전의 라이나 蔡氏의 譜가 그 하나이다. 族譜가 없으면 사람이 고대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세는 반드시 치에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게 되는데 이를 것임으로 族譜을 만들어서 같은 姓을 갖인 상황으로 하여금 그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여 親睦하는 뜻을 敷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李氏 延安에서 나와 高麗대에 繫연하였으니 마땅히 族譜가 있을 것이다. 이에 아득히 도달하는 것이 있고 다만 戶籍과 어 장이 옛 상자에 남아서 先世의 四五代를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先世의 兄弟 및 支派는 알 수 있고 始祖께서 어느 時代에 일어나시었는지 초창인 계이 없으니 어찌 復數스럽지 않은가. 與地勝覽에 기록된 것으로 말하면 延安의 李氏 三派가 있으니 諱貴齡 諱貴山은 우리 先祖이요 諱石亨은 지금의 判書 延惠의 先祖이요 諱淑琦 諱璵은 곧 延

陵府院君好問의先祖이다. 이三派가 모두 그所出의先祖를 모통으로 그派系가 同源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다. 僕傳하기는 唐의 李茂蘇定方을 따라와서 百濟를 정벌한 功이 있어 延安에食采하니 延安에 李氏 있음이 이에서 비롯하였다. 하고 延陵의 先人墓碣에 이망을 기록하였으나 다만 역사에 明證이 없음으로 믿기 어려워서 아직 그대로傳疑함이 疑証다. 우리 집은 尚書公이  
제로 名卿과 賢相이 前後하여 많이 나오고 비록 종친에 家福를 끼었어도 솔知公이 다시 顯達하  
고 우리 曾祖兄弟三人이 함께 大科에 及第하였으며 구속으로 登科하여 宰列에 오른이 지금까  
지 끊임이 없으나 이 어찌 先世의 積德이 厚하여 餘慶이 영리 미침이 아니겠는가? 康胡公의 六  
代孫門長이 일찍이 謂牒에 뜻을 두어 袷集하고 承旨公의 五代孫恭奉公이 또한 撰謄하여 先考  
와 더불어 한번 証定하였으나 모두 脫稿하지 못한 채壬辰亂에 門長이 袷集한 것은 복에 라서  
제가 되고 충奉公의 所撰이 홀로 全州에 있는 宗報의 頭에 保全되었으니 이 또한 다행한 일이  
다. 光庭이 가만히 생자하 전대 우리 家의 謄牒이 이미 翻寫되었으나 아직 정리하지 못한은 참으  
로 우리 家의 袷牒으로 어찌 先人의 뜻을 轉述할 것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我朝에 등  
어와서 二百餘年の 流派의 명옹과 眞姓의 復孫이 몇百千인지 알 수 없는지 지금 모두 收錄하  
려 하면 일이 번거로와 쉽게 끝나지 못하리니 이는 徐徐히 할 것이라 차라리 姓系 및 同姓의 親  
族을 적고 帶り印出함이 나을 것이라 하고 이에 替謄를 조중 証定하되 先世에 寿·恩· 및 墓  
의所在地와 始夫人的 先系를 기록함은 故牒을 염려 詳細히 한 것이라 땅은 出嫁하였어도 반드시  
기록함은 姓이 같기 때문이요 戶籍本을 卷首에 있음은 後世에 보이기 위함이라 撰謄을 마  
치고 湖西方伯 弘老氏에게 보았으니 弘老氏이며 光庭에게 품제 보내며 막하기를 원치대兄은 教  
정하고 序를 지으면 나는 登掉하여 네리傳하게 하리라 함으로 光庭이 基禹氏에게 賛正하여 봄

改定한 것이 있다. 아이 그譜는 전부터 시작하였던 것이 마침 오늘에 이르어지니 비록 異姓  
親에 대하는 다 쓰지 못하였으나 尊祖 敬宗하는 본의는 정로 先志를 발하고 先業을 이었는데 있  
으니 어찌 그 간략하게 편것을 용서하고 그릇을取하지 할겠는가? 한 번 賤微봉에 先代의 系  
統과 支派의 分別이 마음과 눈에 분명하니 나누어 떨하면 한 사람의 둘에서 無服之親에 이쓰고  
참하여 爲 하면 無服之親으로 부려 한 사람의 둘에 근본을 두었으니 이 譜를 함께하는 이는 비  
록 親疎와 遠近의 구분은 있어도 先世로서 보면 진실로 彼此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만약 同  
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譜로 하여 그 근본이 하나임을 생각하게 된다면 故略하는 일은 괴  
연하지 않아도 스스로 想하여 정것이니 이는 우리 譜를 만드는 뜻이라 同譜하는 사람은 그 도  
한 淳樸할지이다

乙巳宣祖秋七月 日 忠勤貞亮勤協菴庵

聖功臣輔國榮祿大夫延原府院君李光庭序

### 舊譜 拔原文

世家大族必有譜者所以紀其世系而示尊祖敬宗之意於來世也我延安李寔三韓望閭首尾  
千有餘年名卿賢相代不乏人族譜之作宜有其舊而今無傳焉意者我先祖春川公籍沒之變  
因散落而昧昧也項年門長嘉山公與叅奉兄嘗撰定譜牒稿未及脫達有云亡之歎重以壬辰之  
亂又灰燼而無所尋矣茲者延原李兄光庭氏暨李正基禹概然以繼述先志爲己任搜得草稿  
於兵燹之後謹校外訛參以見聞作爲一譜屬余刊行噫人之若子若孫若兄弟叔侄近而功體遠  
而無服雖有親疎等級之別而要其歸則如水之同源而派分木之共榦而條達正所謂一本而萬

殊也然則載名同譜者其敢曰我與彼代相遠也分相疎也而不思其所自出者乎古人曰觀我譜則孝悌之心油然而生斯譜之作蓋開發先世未發之遺意而導後生敦睦之義於無窮延原公輩真孝悌人也歟真孝悌人也歟

乙巳秋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

李弘老書于公山之緩帶軒

### 舊譜跋譯文

世家와 大族이 반드시 族譜가 있으니 族譜는 그 世系를 따라서 尊祖 敬宗하는 뜻을 後世에 보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 延安의 李氏는 郡 三韓의 望閭로서 千有餘年 동안 名節과 賢相이 代에 誉이지 않았으니 族譜를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 傳하는 것이 없다. 楚작하 전래 우리 先祖 春川公께서 譜沒하는 번을 끊으시고 이내 호려에서 當장한 // 이 되다 지난 해에 門長 嘉山公이 慈奉兄과 어부여 일찍이 譜牒을 摆定하였다가 脱稿하지 못한 채 存沒의恨이 있었고 그 위에 士辰亂을 만나 복에 차 제가 되어 찾을 바가 없이 되었다. 이에 延原季兄光庭氏 및 李正基禹이 慨然히 先志를 繼述하는 責任을 지고 草稿를 亂後에 찾아 說譜를 教正하고 見聞을 照하여 譜를 만들음에 나에게 刊行할 것을 呵하하였다. 아아 사람의 아들과 손자와 弟兄叔姪이며 가까이는 功課의 服과 명리는 無服之親에 이르기에 비록 親疎等級之 구별은 있어도 그 귀경은 물이 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오고 나무가 또 민물에서 가지가 퍼지는 것과 같으니 이론바 근본은 하나이면서 만 차례로 험하게 진다는 것이니 同譜에 이를을 재개편 사람의 어찌 감히 저 사람과 대가 맹고 交분이 성기라고 하여 그 所自出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역사참이 말하기를

우리 楠譜를 보면 孝悌의 마음이 油然히 일어난다 하였으니 이 譜를 바탕으로 대체先世에 이어  
시제 못한 遺意를 받았고 後生에게 敎嗟하는 뜻을 無窮로 하여 있으니 趙原公을 위시한  
예리분은 賈으로 孝悌人이라 할 것인가? 當으로 孝悌人이라 하라云다

乙巳秋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李弘老는 公山의 緇帶軒에서  
坐타

### 甲 成 譜 跋 原 文

吾李氏顯於世者三派而舊無譜其源系流派莫得以詳若干所記識者亦多有闕遺不可以放吾  
先祖府院公爲是之懼與宗人李清風基高甫繼先志述先事掇拾於亂餘灰覽之中使忠定公手  
寫一通屬之忠清觀察李公弘老刊行于世語在府院公李觀察序文中厥後九十年無繼是譜而  
作者流派遠而子姓繁其親疎遠殆無所考稽矣清風公之孫故應敎后沆大概於斯勤加裒  
集屬章幕而逝至癸酉秋萬元蓮以關西觀察使將西下吾宗長老咸集于芹谷尚書公第謀所以  
卒業錄梓之道或者以爲三派之李同貫於延安而俱系於中即傳說于今則必是一人之後無疑  
不可不同譜或者以爲自吾先以史無明證既置之傳疑則不可必謂之同祖而與之同譜卒從後  
說只錄吾派別作一牒而吾再從祖牧使奎徵公主其事取應敎大所裒集者校讎添錄翌年春譜  
始成而送于萬元萬元使弟萬成萬根書以入梓斯豈非吾宗之幸也耶萬元即主前說者也並其  
說錄之卷後以俟知者擇焉

甲戌 諸廟幕參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延陵君李萬元謹識

## 甲戌譜跋譯文

우리 李氏 가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크게 나누어 三派이다. 本来 族譜가 있어 源流 族系를詳  
細히 알 수 있고若干의 記錄이 있기도 또한 閻謙가 踏아 上考할 수 없다. 우리 先祖 府院公과  
서 이종 祚繼위 하시어 宗人 李清風 基高甫와 더불어 先志를 받들고 先事을 이어 亂後의 訣  
미에서 죽어 모야 忠定公으로 하여금 一通을 쓰게하고 忠清觀察本宗人 弘參에게 付託하여 壬  
上에 利行하게 하니 그사연은 府院公과 李觀察序文에 있다. 其後九十年이 되어도 이譜를 이어  
만드는이 없으니 流深가 절어 子孫이 번성하여도 그 親疎와 遠近을 거의 詳考할 바가 없이 되  
어 있다. 清風公의 孫子 故應教后流史이 이여 慷然하여 부자전히 袷集하다가 마치지 못하고卒  
逝할으로 癸酉秋에 이르러 萬元이 마침 閩西觀察使로 將次 西下하려함에 우리 宗中의 長老가 모  
여 茅谷 尚書公第宅에 모여 出版 完成할 방도를 畏하였다. 혹 생작하기를 三派의 李氏가 함께  
廷安을 育姪으로 하고傳하여오니 반듯이 한 사람의 後孫들이 의심할 바 없음으로 同譜하여야  
것이라 하고 紹聖각하기를 우리 先代 歷史에 명화한 孝證이 엄용으로 아파傳疑한다. 하였으니  
반드시 同祖라 하여 함께 同譜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마침내 後譜를 조차 다만 墓表만을 따로 적  
어 譜牒을 만들것에 우리 再從祖 技使 金徵公이 그임을 주장하고 應教大의 袷集한 것을 取하여  
校正 편집하고 이듬해 봄에 譜가 비로소 完成되어 萬元에게 보내오니 萬元이 아주 萬歲과 萬根  
으로 하여금 배서 入棺하니 이 어찌 우리 宗中의 多幸이 않나겠는가? 萬元은 곧 前說을 주장  
하였음으로 아울러 그 說을 褒문에 적어 아는 이의 賞賜 할 것을 기다리노라

甲戌 譜跋 春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延陵君 李萬元 譜識

癸酉譜跋

甲戌譜有跋此無原文

此我延安李氏新譜也舊譜之成一在宣祖乙巳一在肅廟甲戌迄于今爲百有餘年子姓繁而派系難徵宗丈兢德氏病之倡新譜之議諸宗莫敢有異辭於是兢德氏收單鵠財祖廷氏相其役四載告成卷帙視舊譜三倍之後將訖宗中長老屬重蓮記其尾重蓮何敢第余於斯譜之成竊有所感者蓋舊譜之創修者延原公而蓮峰公校讎之繼修者廷陵公而應教公裒集之今又祖廷氏兢德氏終始斯役重蓮亦夕有參間者事若不偶遂書之如此

癸酉純廟夏通訓大夫行弘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南學教授別兼春秋重蓮謹識

癸酉譜跋譯文

이는 우리延安李氏의 新譜이다 舊譜가 이루어 어 długi 하나는 宣祖廟乙巳요 王과 나는 肅廟甲戌이나 지금 百餘年에子孫이 繁盛하여 派系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宗丈兢德氏는 고상하고 新譜 만족의 경을 내니 여러 宗人이 함께 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兢德氏는 收單鵠財 함께 祖廷氏는 일을 둘고 四年 만에 完成되니 卷帙은 舊譜보다 三倍나 되었다 일을 장차 마치 끝난다 宗中의 長老重蓮에게 그 꼴에 놀라 하니 重蓮 어찌 함께 하리오만는 다만 내 이 품을 이름에 있어 느끼는 바 있으니 대체舊譜을 创修한 이는 延原公으로 蓮峰公이 校正하고 繼修한 이는 延陵公으로應教公이 袤集하고 지금 王祖廷氏와兢德氏 이 일을 始終하고 重蓮도 또한 參與하였으니

이 육연학자 誠音으로 드디어 이류 장이 席乃斗

癸酉純祖夏 通訓大夫 行弘文館副校理 知製教 楊經筵侍講官 春秋館記注官商學教授別  
兼春秋 重達 謹識

### 庚申重刊譜序 原文

民生厥初無有不人有所受姓之祖孫有別爲氏之族遂以有一家之姓爲一家而有氏族之分爲故易之同人君子類族周之小史昭穆辨世下至漢唐宋有族姓鑑氏族志家藏譜是耳惟其規美其法重陳世德述家風厥惟舊矣至若歲月久遠子孫衆多如千枝百派愈繁而愈分則其爲處也周矣此所以譜事之圖始而善終者蓋鮮矣謹按李姓推臯陶爲肇先是爲德明皇唐虞夏殷世爲理官以官姓理有理微以直道事君逃難于伊僕之墟食木子變理爲李下逮玄元皇認李爲姓歷幾何至唐朝謂隴西后追本于二皇崇奉之也此李姓之所自受遠矣且古昔云中郎將李公茂以唐皇族從蘇烈征百濟有功采延安延之李遂大于東世以華族稱之姓李之氏貫于延此也至麗未值別抄武亂家失譜牒其派系不可攷有詹事小府通禮三派最著五峰月涉兩公直斷以中郎公爲始祖惟海峯公以詹事府君爲鼻祖文獻不足故耳亦不斷而辨之即慎重之義而俟後考而不惑者也自詹事公六傳至諱元發號隱峰以麗季興工判書本朝拜相不出與元祐谷天錫爲道義交有子長曰貴齡官左相謙康胡次曰貴山都觀察即吾祖也其後顯者聞以世望於國宜可以譜采之鉅麗藏于家矣粵昔乙巳之譜海峯公作序蓮峰公校正橋汀公書跋被一冊而已甲戌延陵君與應教后沈氏修舊譜作識跋此其營刊板也亦不過三局以遠錫也重訂也過畧而太簡

諸宗病之甲午有西湖是闈亭會議別帙固猶未刊林下公諱社永氏寧谷山時與一秉齊祖廷氏議重刊前譜至十餘年中草稿未完當門長林下公捐世既無統緒愈復延挹至後甲戌而刊凡十卷砥平公兢德氏所蒐輯也近古甲乙來屢通刊譜每值時艱中輒益百年未遑識者憂歎迄今丁巳炳易義國謀所以修明譜牒刊舊祛繁義惠又從以校正之脫藁于龍仁丙舍庸月日竣役譜若干卷屬余爲序以圖不朽余遠伏天石枕廬年衰筆秃不能爲力於一言亦不知諸宗之議何而徒輒舊聞於家傳之精確者以歸之且誦其宗族之勤誠敦誼云自中郎公東出顯慶庚申距今庚申凡一千二百六十一年也歲久而孫多其可憐也其爲延季者不得不以中郎公爲氏祖也嘗論之自一身而散千億骨精氣脉貫通上下雖千百世即一己之理也或本枝而楚越若祖免而道發視是豈彝性之本然也哉嗚呼纂先則孝悌之心生矣合族則和睦之風興矣今延安李氏譜成矣吾門其庶乎是乎是爲序俾易之勉乎哉

歲在庚申仲春上浣林下侍郎從玄孫容九謹撰

庚申重刊譜序譯文

사람이 처음 남에 모여 성을 받은 선조가 있고 자손이 따로 민족이 되어 한 집의 성을 갖게 된 으로 민족의 근본 있는 것이다 그점으로易의 同人에는君子는 氏를 領한다 하고 周의 小吏에 는 昭穆으로 世代를 구분한다 하고 내려온 漢唐宋에 이르서는 氏姓 藝民族志 家譜가 있게 되었다 아! 아 그 자모가 아름답고 그법이 紹하여 世德을 떠고 家風을 이어오래되었으나 만약 세월이 흐러서 주체가 많아 수가지와 四方을 覆할 積한 約한 후 미역 나누어지니 그 관심

됨이 많다 이점으로 族譜가 시작되었으나 끝이 엿을 때 짧아지는 어려운 것이다 삼가 상파보  
 전대 손씨는 韓陶로肇先 손상으니 문 德明皇이요 唐虞夏殷에 대대로 理官이 되었음으로 官  
 名을 따서 理로 姓을 하고 理微이 直道를 임금을 섬기다가 伊帳의 해로 難을 피하고 손구를 먹  
 고 살았으므로 理를 손으로 고치었으며 玄皇帝에 이르러 손씨로 認定하고 여려代를 내려와  
 唐朝에 이르러서 隋西后와 일쳤고 二皇에서는 본 되었다 하여 荣奉하였으니 이로보면 손씨의 대  
 혜이 명 것이다 또 예전에 이르기 를 中郎將 李公茂가 唐의 皇族으로 蘇烈을 따라 百濟를 征伐  
 향적이 있어 延安에 食采하고 延安의 손氏 드디어 크게되어 우리나라에서 族族으로 일쳤었다  
 하니 손氏가 延安에 本貫을 둘은 이 때문이다 麗末에 이르러 别抄의 武難을 겪고 譜牒을 잃어  
 서 그 漢系를 上考할 수 없이 되었으나 唐事 小府 通禮의 三派가 가장 둘어났다 五峰 月沙兩  
 公은 閔中郎公을 始祖로 斷定하였으나 오직 海阜公만은 唐事府君을 始祖로 하였으니 文獻이 不  
 足하기 때문이요 또 段석 하지 않음은 慎重하는 뜻에서 復考를 기다려 현우되자 않으려 한 것이다  
 唐事公으로 볼려 六傳하여 諱元發은號隱峰이니 麗季에 與工判書로 本朝에 相職에 拜하였으나  
 나아오지 않고 元祐谷 天錫과 더불어 道義文을 贊었으나 長子 青齡은 左相 謂康胡로 次子 青山  
 은 都觀察이니 둘은 우리의 先祖이다 그뒤에 들어난 것은 세상에 알려지고 나라의 優秀이 되었음  
 으로 錦麗한 譜系이 精銳傳함이 마땅할 것이다 前의 乙巳譜는 海阜公이 序文을 짓고 莲峰公이  
 校正하여 橘汀公이 証을 했는데 한 版본이 있고 甲戌에 趙陵君이 應敎后沈氏와 之子이 舊譜를  
 속전하고 譜文을 지었으니 이는 箕營의 刊板으로서 또한 三卷에 지나지 않으니 速鑄하고 重訂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간략함으로 여러宗人이 저절하였다면 우에 西湖의 是閣亭에서 講하고 別  
 템을 만들려 하였으나 빙어오다가 林下公 諱社承民 谷山에 出家하였을 데에 一乘齋祖延氏와

를 어 前譜重刊한 것을 議論하였으나 十餘년이 지나온 草稿가 完成되지 못하였다 마침 門長林下公이 후遊하여 실마리를 장지 못하여 다시 빙어오다가 後甲戌에 이르러 出刊함에 모득 十卷이니 碩平公 離德氏의 葬辭한 바이다 甲乙以後에 예례화제 刊譜학 것을 當리였으나 雖當時事로 因하여 거친었으니 故此百慮을 두고 이혹지 못하여서 아는이 근심하였더니 지금 丁巳에炳勗와 義國이 譜稿을 修明하여 전에 하던대로 박회 번거로움을 면하고자 하여 義惠이 또 校正하여 龍仁丙子에서 脱稿하고 얼마를 지나 渡後하니 모득 若干奏이다 나에게 序文을付託하니 오대傳하고자 하니 내법의 天石墓下에 있어 나이 많고 봇이 무리에 놓히 또한 망을 쳐울 힘이 없어도 여려 宗人이 어찌 앙울져 몽라 다만 예전에 家庭에서 충전 精確한 것을 죽어모아 들려보내고 또 宗族의 부지현함과 敎睦하는 정의를 기리노라 中郎公께서 東으로 나오실은 顯慶庚申이라 지금 庚申과 丙子 一千二百六十一年이 되니 연대 오래되어 주簿이 많을을 알 수 있어 楚安李氏는 中郎公으로 氏祖를 상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일찍이 생각하건대 한몸으로서의 父子의 諤에서 주簿이 되어 배와 기운이 上으로 貢通함으로 비록 千百世라도 큰 한몸이 되는 이치이다 혹 근본은 살으면서 芸越같이하고 近親이면서도 침울하거나는 사람같이 하면 어찌 사람의 本性이라 하겠는가? 아! 아先祖를 忠慕하면 孝悌의 마음이 생기고 宗族이 합하면 和睦하는 氣風이 일어날 것이라 지금 延安李氏의 族譜이 起어졌으니 우리 門中은 크게 繁盛하리로다 이에 序文을 지어 전면하는 바이니 힘쓸지어다

庚申仲春 上流에 林下侍郎의 徒玄孫 容九는 署撰하노라

### 跋

惟我延安之有李氏計十有餘家而世所稱延安三季者以其子孫繁衍閭閻頗矣莫著于三派故

也其一太子詹事府君諱襲洪即吾先祖也次少府監賢呂月沙之先祖也次通禮門事清五峰之先祖也月沙五峰兩公家譜皆以中郎將爲始祖獨吾派姑以史無明徵傳疑至今可勝歎哉生於千載之下欲明於千載之上亦已難矣然雖至千載之久微莫若乎史史者公言也按趙從粧氏族源流延安李氏譜曰唐中郎將李茂從蘇定方平百濟因留仕新羅其後分爲三四派即輿地勝覽所載延安三李是也退溪先生撰甲山郡守李亨禮(五峰曾祖)墓碣文曰蘇定方伐百濟也公之先祖諱茂從之來因留不去而寓籍延安延之李自此始芝峰類說曰延安李氏自中國出來延陵公甲戌譜跋曰三派之李同貫於延安而俱系於中郎將傳說于今則必是一人之後無疑不可不 同譜錄之卷後以待知者擇爲都正公冕九氏丁卯掌令公派譜跋曰吾李得姓自中郎將始此皆 賢人君子之公言也雖非太史氏所采在野亦史也且同派中延城君派譜亦書以始祖豈無可據 而然乎今當修譜各派宗屬會會議考之史證之人以中郎將公尊之爲始祖爲第念吾派大同 譜第三次之作在於 純廟癸酉迄今爲百餘年之久專在丙寅癸巳繼議修譜而連值擾攘幾 至中輒惟吾八旌派暨縣令府尹進士秀才諸公數三派各單最先齊到故先爲錢梓以後日之 大譜已有年所幸於客春康胡公宗孫炳大氏暨其再從炳昌氏慨然興感於尊祖敦宗之義倡大 譜增修之議以延原公宗孫義國甫薦定首任置鄉傳信歲未一週諸單畢至將付刊刷而屬義感 以校正之任以若幽谷固當異辭恭惟吾譜在昔盆峰永膺兩公相與撰集證定而散佚於龍蛇之 變有志未遂者也適於 宣廟乙巳延原公搜集之道峰公考校之始乃有譜於乎休哉兩公之善 繼善述也竊嘗有所感慕于中余於是役事若不偶不揆僭踰之識欲效繼述之忱乃敢勉強從事

然頗以譖寡處不無僨誤之責是所兢懼焉

歲庚申春二月上朔 后孫喜善大夫前 宮內府特進官 義惠 謹識

### 跋 譯文

우리 延安에 李氏 있음에 十餘家이다. 僕上에서 일컬는 延安三季는 其子孫이 繫屬하고 門閥이  
 繼續함이 三派보다 둘에 남아 없기 때문이라. 其하나는 太子唐事府君諱襲洪이니. 끝 우리 先祖요  
 다음은 少府監諱賢昌는 月沙의 先祖요. 다음 通禮門事清는 五峰의 先祖이다. 月沙 五峰兩公의 家  
 譜에 보록 中郎將公을 始祖로 하였으나 다만 우리 家연은 아직 歷史의 明確한 考證이 없음으로  
 지금까지 傳疑하니 어찌 根스첩지 않겠는가? 千年위에 나서 千年전을 践하려 함도 또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비록 千年이 되었라 하여도 역사보다 종명함것이 없으니 역사는 公言이기 때문이다.  
 趙從軒氏의 氏族源流를 보면 延安李氏譜에 略하기 좋. 中郎將 李茂는 蘇定方을 王자 百濟를 平  
 定하고 이내 新羅에 彌留하였으며 그위 三四派를 나누어졌다. 하였으나 雖 東國輿地勝覽에 서  
 있는 延安三季이다. 退溪先生이 甲山郡守 李亨禮曾祖五峰의 基礎文에 略하기 좋. 蘇定方이 百濟를  
 征伐할때 公의 先祖諱茂 따라와서 이내 彌留하고 가지 안고 延安에 寫籍하니 延安의 후는 이로  
 특히 비롯하였다. 하고 芝峰類說에는 略하기 좋. 延安李氏 中國에서 나왔다하고 延陵君公의 甲戌  
 譜에는 略하기 좋. 三派의 후가 함께 延安에 本貫하여서 보록 中郎將公을 先系로 한다고. 지금까  
 지 傳하여오니 반드시 한사람의 後孫됨이 疑心 없어 同譜하지 않을까 없음으로 巻後에 써어 아  
 는 이의 詐擇을 기다리노라하고 鄭正公冕九氏의 丁卯掌令公派譜에 略하기 좋. 우리 李氏 徒  
 姓함은 中郎將으로 勅허하 하였으니 이는 보록 賢人君子의 公言이라. 비록 歷史에 記錄된 것이

합니라 하여도野史도 또한 역사이요 또同源中廷城君派譜에도始祖로立으니 어찌根據 없이  
고령기하였겠는가? 지금修譜함에各派의諸宗이여러차례議論하고歷史를考證하여사람의  
남을증거하여中郎將公을始祖로하기로하였다 다만성자하전대여러派의大同譜을第三次로  
만들음이純祖癸酉였는데지금百餘년이되었다 지난丙寅과癸巳에修譜할것을계속議論하였  
으나이어時機를이나거의中断되고우리八旌派및縣令府尹進士秀才여러派의名單이가  
장언제들을으로언제上棹하고위에大譜의完稿을기다린지여러派에多幸이 지난봄에康胡  
公宗孫炳大氏및그再從炳易氏既然이尊祖教宗하는일에感動되어大譜增修함議論을내  
고廷原公宗孫義國甫로首任을萬定하여郵便으로通信하였더니一年도못되어譜單이모득  
모이어出版하려함에義惠에게校正을맡기니아는것이없어사양함이마땅하나우리譜가전  
에는金峰永慶兩公이서로搜集證定하였다가壬辰亂에散佚되어뜻을이루지못하였다이에  
宣祖廟乙巳에廷原公이搜集하고蓮峰公이校正하여비로소譜가일기되었으니정하나兩公의  
장繼述하심이여이에感動됨이있으니내이일에關與함이우연히합음으로회합함을藉아  
리지않고繼述하는精神을본받으려敢히捷事하였다 그러나宜聞뜻으로장못된거나없는  
지이를드려워하노라

庚申春二月上諭后孫嘉善大夫前宮內府特進官義惠謹識

### 跋

延安之李世稱三韓望閭古必有譜而湮失不傳至宣祖乙巳海臯蓮峰橋汀三公始以康胡  
公先祖戶籍爲本而旁收諸族修譜僅一卷後九十年甲戌爲三卷譜又百十九年癸酉爲十卷譜

每一續修卷帙輒增三倍今距癸酉爲一百有八年新譜止二十三卷其間子姓之繁衍未必只此且重修之經紀今已四載其或輸示不均有司之責歟抑慢於宗事漏單者多歟實未可知也舊譜海臯公序曰康胡公六代孫門長嘉山公嘗有志於譜牒衷集頗勤承旨公五代孫叅奉公亦爲之撰譜與先考一嘗證定云云今幸三家後裔同爲始終時異事同亦可謂繼述先志夫噫惟我先祖議政公積德累仁餘慶所及不啻百代而撓近所零替者莫不由忠孝勤儉不逮先輩故也凡吾同譜之人勉乎哉勉乎哉

庚申之仲春 康胡公十七代孫炳易謹跋

### 跋譯文

是安의 李氏 종세上에서 三韓의 望闕이라 하니 首에 반드시 該譜 있었을 것이다. 인명되어 傳하기 많다가 宣祖廟乙巳에 이르러 海臯 蓮峰 檢訂 三公이 비로소 康胡公先祖의 戶籍을 根據하 고 결으로 여려 宗人의 譜牒를 모아 제외 一卷을 만들었고, 뒤 九十年 甲戌에 三卷이 되고 또 百十九년 癸酉에 10卷이 되니 增陽 欽曄 繳修에 卷帙은 逐々 三倍로 늘었다. 지금에서 癸酉가 108년이 되나 新譜는 23卷에 그치니 그동안 자손의 豐盛하여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또 百重修을 성행한지 4년이 되는데, 특히 祠祀 祀祿까지 많아서 有司의 責任인지 그 험지 같으면 宗事에 難免하여 滯落될이 많아서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舊譜의 海臯公序文에도 말하기를 康胡公六代孫門長 嘉山公이 일찍이 譜牒에 뜻을 죽여 袋集을 낙제된 바 있고 承旨公五代孫 叁奉公이 또한 譜牒하여 先考와 더불어 證定하였다 하니 지금 다음과 같이 三家의 後裔가 함께 始終하니 하는 담과도 같은 깊음으로 王憲先志를 鑑述한다 하리라 아아 우리先祖議政公께서 德과仁을 상

기화 勤儉이 先輩을 따르지 못할일 것

*	崔 露	*	041-855-3589	충남 청주시 풍활동 206-1	314-0601
*	大 奉	*	02-915-6746 011-260-6746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38-10	136-826
*	唐 吉	*	031-852-0430 011-752-0431	파평부시 만학동 694 신돌마을A407-901	480-090
*	成 銘	*	032-751-0615 019-574-1142	인천시 중구 운서동 2788-2 금호2차A 207-1004	400-833
*	聖 圓	*	031-707-1195 011-737-1195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214	463-410
*	永 輝	*	02-863-4147 016-240-4147	서울시 구로구 개리봉동 115-120	152-800
*	慶 照	*	02-416-9869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7-31	136-847
*	吉 奉	*	053-562-6509	전북 고창군 총리면 용란리	585-824
監 奉	顯 一	載 奉	02-537-8831 011-756-2013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1-1 신반포 지구A 36-704	137-040
*	完 銘	司 評	031-792-3518 016-308-3518	하남시 초일동 238	465-120

설 외	이 응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83	(031)781-0134 011-9092-3335
자문위원	이 혁 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344-24	(031)257-3482 011-790-3482
	이 용 카	경기도 광주시 쌍평동 353-9 현대1차 (A) 102-901	011-9978-2675
	이 대 명	서울시 성북구 창위3동 38-10	(02)915-6746
	이 윤 길	경기도 의정부시 만らく동 694 산들마을(A) 407-901	(031)852-0430 011-752-0431
상임고문	한 춘 섬	성남문화원 부원장, 학도사학자	011-798-1338



제2회 학술토론회  
판교지역 연성군 이른 금석문 연구

인 대 : 2004년 2월 23일  
발 행 : 2004년 2월 25일  
발행인 : 남 선 후  
발행처 : 상남문화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동1동 6905  
전 화 : (031) 796-1082  
팩 스 : (031) 796-1056

\* 비매품 대포